

20

대학내일

No.847 2018.4.16~2018.4.22

ISSN 2465-7883

SPECIAL

우리가 무음 모드를 택한 이유

네 얘기가 좋아서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캠퍼스에 존재하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

+

소심이의 소심한 생활
비상경보!
노잼 시기가 '또' 찾아왔다

—

대학 시험은 다들 줄 알았는데
중간고사 뺄침 포인트 6

—

올의 하루 '경영지원팀' 편
괜찮아요, 퇴근은 내년에 하면 되니까

—

독자 코너 '10만원이 생긴다면?'
다음주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MILLENNIALS BY

BRAND CHALLENGE 2018



아모레퍼시픽 마케팅 공모전

테마 Millennials by Millennials

예선 접수 기간 2018.4.26~5.16

오리엔테이션 2018.4.25 (아모레퍼시픽 본사 아모레홀)

공모부문

1. Strategy 부문 : 밀레니얼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상품 기획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2. Creative 부문 : 밀레니얼에게 브랜드/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이미지 콘텐츠 제작

공모자격

국내 및 해외 4년제 이상 대학(원)에 재/휴학 중인 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구성
※ 직장인 대학원생과 2년제 대학 졸업 후 4년제 대학 편입 예정자는 응모 불가



MILLENNIALS



KNU

KU KONKUK UNIVERSITY



GIST



오, 신맵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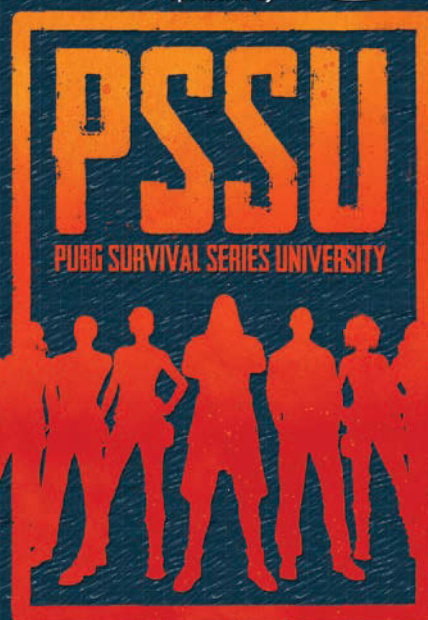
- 아니.

배틀그라운드 대학 최강전

4월 21일 토요일 개막전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OGN 생중계

LG gram | 
sponsored by



주최/주관

OGN

후원

LG gram



EDITOR

서재경 suhjk@univ.me

PHOTOGRAPHER

박시열

STYLIST

안미나

HAIR & MAKEUP

정화영·정현욱

KANG MIN JI

강민지

광운대 로봇학부 15



셔츠는 에디션벨 슬렉스는 그레이 스타저, 운동화는 스케쳐스

01

'2017 슈퍼모델 선발대회' 출신이에요.
어떻게 참가하게 된 건가요?

공대생이던 제가 한 잡지사에서 주최한
모델 콘테스트에 도전하게 됐어요. 운
 좋게도 4천 명의 지원자 중 TOP10에
 들었죠. 결과는 좋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했던 기회라 오히려
 미련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각오로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앞으로도 멋진 모델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요.

02

전공이 특이해요. '로봇공학'을
공부한다고요?

지금은 모델로 일하고 있지만, 한때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아이언맨
슈트를 너무 만들고 싶었거든요! 목표가
생기니까 수학, 영어, 물리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와서
실제로 배틀 로봇, 춤추는 휴머노이드,
RC 포크레인, 건강증을 위한 어플 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왕피피
스타일링
앤디
메이크업
앤디
헤어
앤디
피피

03

휴학을 했다고 들었어요. 휴학하는 동안
무엇을 해볼 계획인가요?

이번 휴학의 테마는 '배움'이에요 (웃음)
평일에는 영어 회화랑 연기 학원에 다니고,
주말에는 제가 소속된 YG KPLUS에서
토크 클래스 워킹반 수업을 듣고 있어요.
지난 2월에 SBS <생방송 투데이>
리포터로 발탁되면서 학교를 자주 빠지게
될까 봐 휴학을 결심했는데 코너가 금방
사라져버렸어요. 휴학을 괜히 했나 싶었죠.
그래도 이미 결정된 거니까 학교 다닐 땐
바빠서 못 배웠던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익혀두려고 합니다.



04

아직 못다 이룬 캠퍼스 로망이 있나요?

예쁜 벚꽃이 피면 억울하게도 늘 시험
기간이에요. 저희 학교 노천극장에 벚꽃이
진짜 예쁘게 피는데 늘 공부하느라 단 한
번도 여유롭게 벚꽃 구경을 못 해봤어요.
쏟아지는 과제에 치여 밤새 연구실에 있다가
새벽에 집에 가서 못만 갈아입고 다시
학교에 온 적도 많을 정도니까요. 었드려서
2시간씩 쪽잠을 자기도 하고... 내년엔
대학생 때 보는 마지막 벚꽃이란 생각으로
봄이 주는 찰나의 선물을 즐겨보고 싶어요.



05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하루를 마치고 다이어리를 쓸 때가 제일
편안해요. 바쁘고 힘들어서 지친 마음에
'아, 오늘 하루 겨우 해치웠네' 싶은 하루가
있는가 하면, 기쁘고 행복해서 내일이
기대되는 날도 있잖아요. 후자 같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해요. 아무리
고된 하루였어도 다이어리 쓰면서 마음을
다독이고 잘 위로하고 나면 내일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잔잔한
노래 틀어놓고 다이어리를 쓸 때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어요.

06

10년 후 '강민지'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또 대중의 신뢰를 받는 배우가 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출연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배우요! '자신감은 성공이 아니라 시도해
보는 경험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좋은 경험들로 저를
채워서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론 지금의 초심도 잃지 않을 거예요.

10
COVER MODEL STORY
이주의 모델 민지씨의
휴대폰 속 일상 사진들

12
READER'S LETTER

14
주간줍줍
에디터의 취향으로 이주에 주운 것들



15
20'S VOICE
완벽이 아닌
우연이 주는 즐거움

CONTENTS

No.847 2018.4.16~2018.4.22

SPECIAL

16
SMALL MIND
비상경보,
노잼 시기가 '또' 찾아왔다

18
10만원이 생긴다면
엄마를 위한 딸의 홈케어 서비스

20
CULTURE GUIDE
PLAY <카포네 트릴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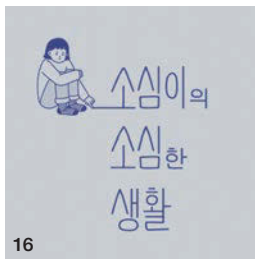
32
INTERVIEW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작가 정문정

36
CAMPUS
중간고사 뺑침 포인트 6

38
을의 하루
경영지원팀 편

40
THINK
되고 싶어서 말고
하고 싶어서

42
PUZZLE
기명균의 날말퍼즐



23



우리가 무음 모드를 택한 이유

'무음 모드'를 유지한 채 주류가 흘러가는
방향에 무던히 섞여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나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6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44
WHAT'S NEW
이주의 주목할 만한 소식들

45
OUTCAMPUS
시험 끝나고 놀 궁리만 하는
너를 위한 활동 BEST 4

CONTENTS TEAM

팀장 홍승우 부팀장 정문정

MAGAZINE

파트장 김신지 summer@univ.me
에디터 김혜원 hyewon@univ.me
권혜은 hyen@univ.me
서재경 suhjk@univ.me
학생 에디터 김은지 김혜원 문소정 정다빈
교정교열 차은선
디자인 팀장 김해정 kiko@univ.me
디자인 남미가 miga@univ.me

DIGITAL MEDIA

파트장 정문정 moon@univ.me
에디터 김슬 dew@univ.me
김준용 dragon@univ.me
박현지 lauraruler@univ.me
배다솜 sombang@univ.me
학생 에디터 권용범 구하민 박소영 이진영
정다운 허정민
디자인 디렉터 윤희선 yoon@univ.me
디자인 김지현 uujuinn@univ.me
이승은 lidy@univ.me
김은미 mongmigu@univ.me
조범식 booomsik@univ.me

MEDIA COMMUNICATION

파트장 홍승우 sseung@univ.me
책임에디터 김효은 hiho@univ.me
조종재 woongja1@univ.me
에디터 백수빈 bin@univ.me
강민상 ninsan@univ.me
김상구 nine@univ.me

BRAND JOURNALISM

파트장 김초롱 rong@univ.me
책임에디터 주태환 joo@univ.me
박정욱 wook@univ.me
에디터 조아라 ahrajo@univ.me
기명균 kikiki@univ.me
김수현 soo@univ.me
유희수 hsyu@univ.me
노치원 kingofamonkey@univ.me

STAFF

발행·편집 김영훈 batcong@univ.me 공동 대표 유영기 김영훈 부대표 이태영 이사 김창배 고문 박재항

마케팅커뮤니케이션 1본부

본부장 김부진

마케팅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조인천 책임매니저 신예지 이혜민
매니저 손유리 조하니 김지영 사원 권소영 안예지 조지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김우준 파트장 김영현 이재우
책임매니저 이지연 유효정 홍보미 육혜진 권오태 책임에디터 김민정
매니저 백소연 한은지 이인재 사원 김준호

마케팅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안길상 파트장 조소라
책임매니저 김동하 양현정 홍보람 매니저 한희진 이혜인 신호영

마케팅커뮤니케이션 4팀

팀장 김지혜 파트장 김영수 문왕기
책임매니저 신현정 허이슬 김예림 박미소 정영수
매니저 송태광 에디터 정혁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2본부

본부장 박배길 수석 황정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5팀

수석 김효선 임영화 책임매니저 박종남 이은지
매니저 김규태 김다는 이상복 김유진 탕예 정유진 한문규
사원 장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6팀

팀장 이수이 매니저 배용근 강지인 황주랑 사원 정규홍

마케팅커뮤니케이션 7팀

팀장 탁귀영 수석 박지호
매니저 봉장중 강혜민 임은비 최진성 박상덕 최정인
사원 양재희

채용마케팅본부

본부장 김종원 수석에디터 이정섭 책임매니저 최규성

채용마케팅1팀

팀장 유제문 수석 홍성우
매니저 김형민 서창호 정희성 이성훈 박연우
사원 이종혁 이윤성 이정영

채용마케팅2팀

팀장 유진혁 수석 박준하 매니저 이준호 정기현 안창민 허정남
사원 가민희 윤길주 김용빈 김도희

채용마케팅3팀

파트장 신재영 매니저 이지현 최승현 사원 조은솔

디지털커뮤니케이션 본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김범준 책임매니저 남승혁 김현주
매니저 김찬우 김동규 고민지 이아름 사원 송재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차정기 수석 최은혜 책임매니저 강희은 권예빈 매니저 김민주
사원 송수진 이정수

디지털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방수진 수석 이진희 책임매니저 이교영 홍새봄
매니저 김애리 박소영 신예지 이나윤

디지털콘텐츠팀

팀장 김현승 책임매니저 양준호 이연재
매니저 정진복 서준원 이경민 최현정 한동주
사원 김소영 설다운 박지원

디지털디자인팀

팀장 이혜정 책임매니저 박지성
매니저 조현상 임다정 오은정 전계은 김희재

유스마케팅팀

팀장 이성진 책임매니저 양상범 박정은 명범준
매니저 박상현 최은원 권민희 정세미
사원 최창희 김나래 김나영 신은지

공공커뮤니케이션팀

팀장 박강두 수석 진우경 강국현 책임매니저 이재혁
매니저 송정훈 정혜인 이재은 사원 김지수 김하영 윤철한

20대연구소

소장 김영기 수석연구원 문송이 박진수 호영성
책임연구원 송해운 김금희 연구원 이재훈 정은미 지승현 장지성
에디터 남민희 사원 김다희

크리에이티브센터

센터장 조민형 파트장 정은우 전단비 수석 이윤경
매니저 김소연 신재인 사원 최웅진 홍서연

이비즈(E-BIZ)팀

팀장 권판진 수석 임남근 김부록 하윤희 심재운 김진의
책임매니저 고은영 강주빈 김상호 이은주 매니저 김가연 박혜진 조이슬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김운선 매니저 이승훈

경영지원팀

수석 김소연 윤수정 책임매니저 김주은

인재경영팀

팀장 민정규 책임매니저 김이슬 매니저 이상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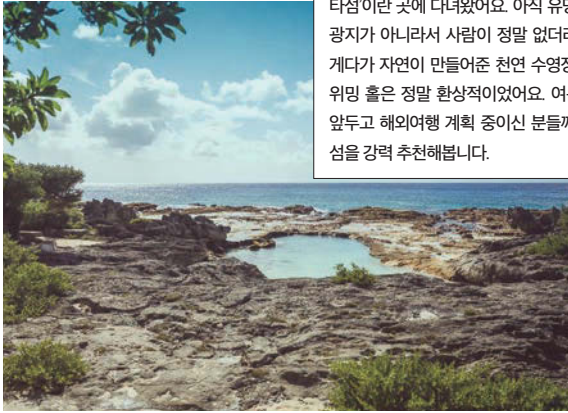
인턴

권아름 권은빈 김나린 김민경 김민기 김소희 박민지 손경민
신하영 유송빈 윤여진 이다빈 이성호 이지선 정수지 정장희
최은유 최현정 홍선아 황기연 황현아 황현정

STORY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뿐

모델 일을 하다 보면 종종 해외 촬영 같 이 생기곤 해요. 얼마 전엔 사이판에서 경비 행기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면 있는 '로 타섬'이란 곳에 다녀왔어요. 아직 유명한 관 광지가 아니어서 사람이 정말 없더라고요. 게다가 자연이 만들어준 천연 수영장인 스 위밍 홀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여름방학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께 로타 섬을 강력 추천해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판만 데!

심심할 때 킬링타임용으로 게임을 즐겨 해 요. 주로 <LOLO>와 <2048>이라는 숫자 퍼 즐 게임을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한 판 만 하고 끝낼 수 없는 중독성을 가졌다는 거 예요. 자기 전에 하면 밤샘 수 있으니 제발 따라 하지 마세요!!!

코끼리도 풀만 먹고 살찐 거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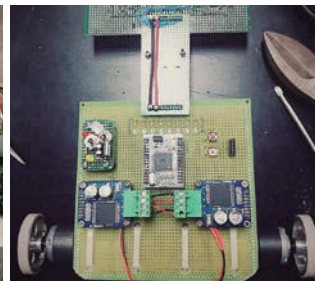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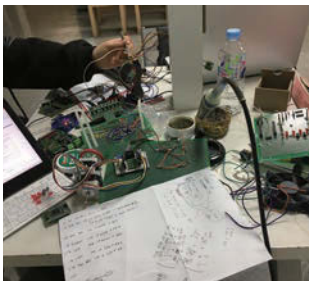
저는 식탐이 좀 있어요.(수줍) 제 인스타그램 계정(@minji.is.good)에 올라온 게시물 중 상당수가 복스럽게 먹는 모습을 담은 동 영상일 정도예요. 365일 다이어트를 해야 하 는 모델이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평소엔 먹 고 싶은 걸 먹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살이 좀 찼다 싶으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땐 직접 갈아 만든 디톡스 음료나 다이어트 식단으로 허기를 달래고 있어요. 그런데 풀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 같기도 해요. 하하.



민지씨의 휴대폰 속 일상 사진들



MinJi's Daily Life



로봇공학도가 틀림없습니다

대학 생활을 고3 수험생 생활보다 훨씬 열심히 했어요. 이때 열심히 살아본 기억 덕분에 앞으로 뭘 하든 다 잘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을 얻었어요. 휴학을 마치고 복학하면 또다시 열 공 모드로 돌아가야겠죠? 졸업 작품을 훌륭하 게 만들어내고, 마무리도 잘하고 싶어요. 지금 도 로봇공학 배우길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2018 Security Hackath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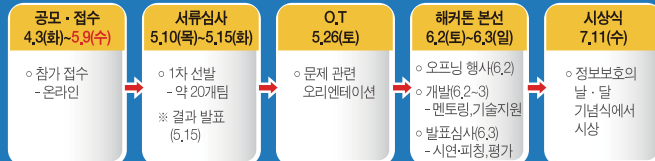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IoT 서비스의 비전을 제시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 개요

목적 |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련 솔루션 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보호 분야 우수 신규 아이디어 발굴

주제 |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한 보안 솔루션 구현 및 신규 아이디어 도출



※ 일정 및 내용은 주최·주관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공모 일정 및 지원 방법

공고·접수 기간 | 2018.4.3(화) ~ 2018.5.9(수), 17:00 限

신청 방법

- 지원서류 다운로드 : KISA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내 '공지사항'란을 확인하여 응모지원서, 개발기획서 등을 다운로드
- 지원서류 작성 및 제출 : 다운로드한 응모지원서 및 개발기획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gss@kisa.or.kr)로 제출
- ※ 접수는 지정된 공모 시간 내에 도착한 건에 한하여 인정(방문·우편접수 불가)
- ※ 응모지원서의 '참가서약서' 및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출력 및 상기 작성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본을 제출 (팀 내 모든 참가자 제출 필요)

유의 사항 | 공고문에 첨부된 별도의 참가 안내서 참고

참가 자격 및 팀구성

참가 자격 | 정보보호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구현 능력을 보유한 학생(고등·대학, 대학원생, 일반인(재직자 등) 등
※ 학생, 일반인 혼합팀 참가 가능

팀 구성 | 팀은 1인 이상 4인 이하로 구성 가능

시상 및 혜택

- KISA, 삼성전자, SKT가 제시한 문제를 창의·혁신적인 대안 및 솔루션의 구현을 통해 가장 우수하게 해결한 5개팀을 선정하여 상장·상금 수여

구분	훈격	시상금	비고
대상 (1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1,500만원	
최우수상 (2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700만원	학생팀* 1개
우수상 (2팀)	삼성전자, SK텔레콤	500만원	학생팀* 1개

★ 학생으로만 구성된 팀

- 수상팀은 KISA가 운영하는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창업·사업화 지원 분야)에 지원 시 가점 부여
- 본선 참가팀에 한해 IoT 개발 KIT(삼성전자 ARTIK 710s KIT) 제공
- 삼성전자·SKT의 IoT·블록체인 전문가의 기술 교육, 각종 기념품 및 경품 제공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인터넷진흥원

SAMSUNG



SK telecom



좀 더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법

박선영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자신 있게 착한 사람'이라니. 그동안 정의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던 나의 행동 목표가 명확히 정해진 문구다. 남에게 착한 것과 나에게 착한 것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 무수히 고민하던 나의 시간들이 드디어 끝을 맺은 느낌이었다. 어느 날 아침, 지하철역에서 바쁘게 걸어가던 나를 한 여성분이 부르셨다. 최근에 '도를 믿으십니까'를 당한 적이 있던 나는 순간적으로 경계했는데, 그분은 내 가방이 열렸으며 손수 지퍼를 닫아주셨다. 처음 뵈는 분이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내 뒤에서 가방을 닫아주시기까지 하니 감사한 마음에 안절부절못했었다.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가던 길을 갈 때에 내 기분은 아주 좋았다. 타인의 호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호의의 크기에 상관없이 너무 좋았던 것이다. 아마 그분도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는 자신 있게 착한 사람'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하루의 시작을 누군가의 호의와 함께해서 좋았던 하루였다. '다들 딱 이만큼씩만 착하게 살아도 세상은 좀 더 살 만한 곳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글의 한 구절에 크게 공감했다.



846호 대학내일

가장 가까운 올의 하루

김민기

입행 1년 차 친구가 생각합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친구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하지만 그의 웃음은 입행과 함께 자취를 감춥니다. 올의 하루가 시작된 거죠. 은행원의 업무를 자세히 몰랐던 저로서는 서운했어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면 한참 뒤에야 답장이 오고, 어렵게 잡은 약속도 야근을 해야 한다며 불참하는 횡수가 잦아졌으니까요. 기사를 읽고 나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친구의 사정이 이해가 갑니다. 실적 압박부터 진상 고객 응대까지, 마냥 멋져만 보였던 은행원의 현실을 알게 됐어요. 친구야, 이제 '신의 자식'이 투정 부린다고 안 놀릴게.



안녕, 외로움

김지민

누가 봐도 '핵인싸'였던 스무 살의 나는 사람과의 인연이 외로움의 틈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다. 그러나 카톡에 대화 목록이 늘어가고, 통화 내역이 쌓여가도 외로움은 불청객처럼 문을 두드렸다. 그때마다 나는 자책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거야?' 나이를 조금 더 먹은 지금은 알 것 같다. 글쓴이가 말하듯, 사람들은 저마다의 외로움을 간직하고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당연하다는 듯이 반겨주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익숙하다는 듯이 한숨 한 번 폭 내쉬어주고 대청소를 하거나 이어폰을 꽂고 한강을 걸어본다. 오히려 외롭다고 친구를 불러내는 건 금물. 외로움은 외로움으로 이겨내보자. 외로움은 어디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
WEEKLY
GIFT



대학내일에서 독자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과 인상 깊었던 기사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독자 의견으로 채택되어 잡지에 실린 세 분께 EDM계의 슈퍼스타 디스클로저의 첫 단독 내한공연 티켓을(1인 2매) 드립니다.

✉ 메일 readers@univ.me * 본문에 이름/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 instagram #대학내일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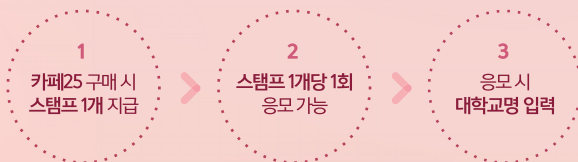


행사가간

3.12 - 4.30

참여방법

나만의 냉장고 앱 이벤트



* 자세한 사항은 나만의 냉장고 앱을 참고해주세요

유의사항

- 학교명은 본인 소속 학교가 아니어도 응원하는 전국 대학교 입력이 가능합니다
- 스탬프 생성 후, 응모/학교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응모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나만의 냉장고 앱을 참고해주세요

경품 안내 학교



경품 안내 개인



우린 틈틈이 행복해야 해

날씨, 장소, 사람 삼 박자가 어우러진 벚꽃놀이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유니콘 같은 걸까? 도서관 앞 뱃나무 아래서 '졸업하면 중간고사 없으니 꽃놀이 실키 해보자.' 이를 같았었는데... 웬걸. 졸업한 지 벌써 몇 년인데 여전히 제대로 된 꽃놀이 한 번 각 적 없다. 어느 해엔 같이 갈 사람이 없었고, 언젠가는 바꿨고, 올해는 강풍과 미세먼지의 습격을 받았다.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꽃 놀이를 하겠다는 각오로 창경궁엘 갔다. 마감이 코앞이었고,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꽃샘추위로 턱이 덜덜 떨렸지만(!) 어쨌든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더라. 그래, 인생 뭐 있나. 이런 뽀시래기 행복이라도 틈틈이 주워 뒤야지. 김혜원



PLACE 창경궁



MUSIC 노리플라이 <나의 봄>

나의 봄은 온통 그대라오

얼마 전, 몸이 안 좋아 주말 내내 집에 누워만 있었다. 약속도 취소하고 끔찍 않는데 날씨가 그렇게 좋다가에 더 서러웠다. 벚꽃 지기 전에 꽃구경 좀 하고 싶었는데... '햇살 드는 카페 창가에서 차 마시고 싶었는데...' 못다 이룬 주말 계획들을 곱씹으며 내내 혼자 속상해했다. 문득 생각나, 이 노래를 듣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 우울했을 거다. 가사 한 줄 한 줄이 어쩌면 이렇게나 봄을 잘 묘사했는지! 덕분에 그날 침대 위에서나마 봄을 즐길 수 있었다. 그 주말, 나의 봄은 온통 이 노래였다. 이번 주말엔 얼마 남지 않은 봄을 직접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지. 서재경

Weekly Pick Up

나의 체온이 새 계절을 부를 때

올해 4월이 유독 추운 이유가 음력으로는 아직 2월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더라. 꽤 쌀쌀했던 한 주를 견딘 지난 주말, 문득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야겠다 충동이 일었다. 일단 7월에 떠날 치앙마이행 항공권을 뒤에 훌린 듯 끊긴 했는데... 내가 더위를 끔찍이 싫어한다는 걸 잊고 있었다. 나란 인간은 늘 지금에 충실해서는, 이렇게 여름을 그리다가도 막상 때가 되면 '더워야 물컹거리라' 대차게 욕을 내뿔을지도 모를 일. 아무렴, 알면서도 내 마음이 굳이 새 계절을 재촉하는 걸 어찌 하나. 할 줄 아는 태국어는 '짜와디캅'이 유일하지만, 좋아하는 태국 인디 밴드의 노래를 어설피게나마 흥얼거리며 낯선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차곡차 쌓아보자. 나의 여름아, 조금만 기다려! 최은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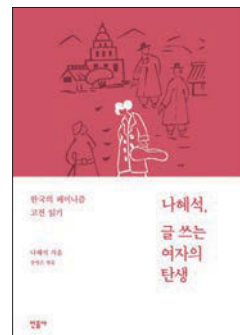
ALBUM JELLY ROCKET <LUCID DREAM>



DRAMA <미스트리스>

가슴에 싹튼 콩

"아저씨가 왜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됐을까? 몇 년 전의 '아저씨'는 원빈이 출연했던 영화처럼 문제가 없는 단어였다." 높은 시청률과 시청자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드라마의 연출자가 한 말이다. 그러나 격렬하게 거부하지 못했을 뿐, '아저씨'가 빛바랜지는 꽤 되었다. 애초에 남성 중심의 서사에 질린 것도 오래되었다. 아무리 체널을 돌려도, 웃기기보단 무례한 남성 패널만 마주치는 것은 상당히 피로한 일이나까. 의사들이 메디컬 드라마를 보기 힘들고, 교사들이 학교 드라마를 보기 힘들 듯 많은 여성들에게 대중문화는 사회생활의 연속처럼 느껴진 지 오래다. 4월 말, <미스트리스>를 방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땐 무작정 반가웠다. 일단 주인공부터 전부 여성. 카페 주인(한기인 분), 정신과 의사(신현빈 분), 교사(최희서 분), 로펌 사무장(구재이 분). 원작이 '영드'이다 보니, 조선의 '이상적인 여성상'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대신 살인과 처정 등등이 범벅되고 꼬일 확률 200%인 모양이다. 막장의 향기가 술술 나면 좀 어때? 가슴에 싹튼 콩처럼 신선한데. 권애은



BOOK 나혜석의 글쓰기

정조는 오직 취미일 뿐이다

언젠가 친구와 시대를 앞서간 나혜석의 평언들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 있다. '욕 말시오? 그 계집이 활발하다, 그 녀자 말도 많다, 건방지기도 하다, 남자와 교제가 많다...' 이 욕 말시오? 칭찬 말시오? 그 색시 압전하다, 말이 없다. 공손하다, 이 칭찬 말시오? '내가 그림을 잘 그리든지 사생 여행을 하든지 하면 다 나를 칭찬해주지 않고 남편이 얼마나 관대해서 그러냐고 하니 안 그러소.'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니요, 오직 취미일 뿐이다.' 그녀의 생애를 통틀어 이 같은 어록은 차고도 넘친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생애를 파국 혹은 몰락이라 하지만, 책 서문에서 밝히듯 "끊임없이 사회의 부당함에 대해 묻고, 자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데 평생을 몰입한 이에게 패배란 없'을 것이다. 그 삶이 끝나지 않은 질문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다. 더 많은 이들이 나혜석을 읽었으면 좋겠다. 김선지

정다운 na-1004s@daum.net
생의 굴곡 또한 기꺼이 받아들여요



완벽이 아닌 우연이 주는 즐거움

실수라 여겼던 순간들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데려다 줬다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냥 좋아서 무작정 시작했는데 색 쓰는 것부터 구도 잡는 것까지 모든 게 낯설었다. 하얀 도화지 앞에서 설레기보다는 두려웠다. 한번 칠하면 돌이킬 수 없을 테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림이 나올까. 혹시 조금이라도 빠듯해서 망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두려움으로 몰려왔다.

'두려움은 허상일 뿐'이라 나를 다독인 결과, 다행히 머리가 도화지처럼 새하얘지기 전에 손을 움직일 수 있었다. 붓질을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속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다. 일단 한 획을 그었더니 '에라이 모르겠다' 싶어서 과감해지더라. 완성된 그림은 다행히 생각보다 만족스러웠다. 두 번째 작품부터는 조금 더 빨리 첫 터치에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 나의 붓 터치는 점점 더 과감해졌고, 부담감을 버리니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이 나왔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흰 도화지 앞에서 어떤 색을 쓸지, 어떤 질감을 낼지 고민했던 순간을 잘 이겨내서일까. 그 과정에서 인생의 소중한 법칙 하나를 배웠다. 바로 '우연적 필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에 구상했던 그대로 작품이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신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영감을 받을 때가 있었다. 순간의 감정에 따라 다른 색을 덧칠하면 그 과정에서 작품이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 색과 저 색을 섞어 상상도 못 한 색이 나왔을 때, 실수를 가장한 우연의 순간에 한숨 아닌 탄성이 나왔다. 몇 번의 우연을 접하고, 나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연적 필연'이라 부르기로 했다. 머릿속에는 없

었던, 계획되지 않았던, 실수라 여겼던 순간들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데려다 줄때. 그 짜릿한 기분은 내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았다.

이후 자연스레 그 순간들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그림뿐만 아니라 인생을 대할 때도 좋은 영양분이 되어주었다. 도화지 앞에서 가졌던 두려움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순간을 만나 설렘으로 바뀌었다. 청춘이라는 새하얀 도화지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어쩌다 실수를 해도, 그 일 때문에 모든 게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 아닌 조금 다른 결을 가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시작점에서 두려움 대신 설레는 마음이 먼저 들어湧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무언가를 처음 마주했을 때 드는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나의 경우 완벽한 계획이 흐트러질까 두려워 지레 겁을 먹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 두려움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머릿속에만 있는 허상이었다. 즉 일어나지 않은 일인 것이다.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두려움을, 우연적 필연을 만나는 설렘으로 바꾸는 것뿐이다. 난 앞으로 인생이란 도화지 앞에서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을 거다. 대신 '우연적 필연'의 순간을 적극적으로 마주하며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꿔보려 한다.



소심이의 소심한 생활

뭘 해도 재미없는 시기가 있다. (a.k.a 노잼시기)



언니 원 일 있어?

그냥. 사는 게 재미없어서.

또 시작이다...



뭐라도 해야 이 시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

영화 보러 갈래?



막상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다.

아니 피곤해. 그냥 집에 있을래.

좋은데 지금쯤 뭘 다 했겠지?



비상경보, 노잼 시기가 ‘또’ 찾아왔다

기운. ‘무언가 본격적으로 찾아오기 전에 어렴풋이 느껴지는 초기 증상’을 이르는 말이다. 마른 가지 끝에 달린 노란 꽃망울을 보고 느낀 봄기운이라던가. 뜨끈한 이마를 짚으며 알아챈 몸살 기운 같은 거. 여기서 비극은 미리 알아채더라도 막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데 있다. 가령 일단 몸살 기운이 돌고 나면, 무슨 짓을 해도 결국 알아놓게 된다.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 조심(다음 주에 바빠서 아프면 곤란한데)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 이처럼 내게 있어 기운이란 신통하면서도 무용한 존재다.

가장 최근에 감지된 기운은 까닭 없는 한숨과 무기력함을 동반한 놈이었다. 평소 좋아하던 것들에 문득 시큰둥해져 이상하다 생각한 참이었는데...

“요즘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육성으로 혼잣말을 뱉고 나서야 놈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노잼 시기’의 기운이었다. 노잼 시기란 ‘뭘 해도 재미없는 시기’라는 뜻으로 대충 붙인 이름이다. 누군가는 ‘인생 권태기’라 부르기도 하더라. 처음엔 나와 친구들 사이에만 통하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제법 대중적으로 쓰이는 걸 보아 모두가 겪는 사춘기 같은 현상인가 싶다. 사춘기와 다른 점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처럼 주기적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 시기에 갇힐 때면 숨만 쉬어도 기분이 축축 처졌다. 중대한 고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한숨이 나왔다. 말로만 들으면 언뜻 우울감과 비슷해 보일 수 있을텐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부류다. 노잼 시기엔 슬픔의 감정조차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웬만한 일에는 무감각해진다. 주변에선 애가 웃지도 울지도 않으니 무슨 일이 있냐고들 물어왔다. 그럼 나는 배부른 소릴 하는 것 같아 의기소침한 채로 답하곤 했다. “...실은 아무 일도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야.”

일년 만에 다시 만난 놈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 이미 겪어봤던 터

마음을 활가분하게 만드는 주문

“인생은 회전식이라서 노잼 시기와 유잼 시기가 무한히 반복된다.”

라 개가 데려올 후폭풍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우선 확실한 건 이번 봄은 망했다는 거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게 지겨워. 다 놔 버리고 싶어.’ 단계에서 ‘여길 벗어나 완전히 낯선 곳으로 가야만 괜찮아질 것 같아’ 단계를 지나 ‘아니야.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아. 사는 게 무슨 의미일까?’ 단계에 이르러 땅굴을 파고 지하 세계로 들어가겠지. 입문 코스는 이렇게 똑똑히 기억나는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왜 몇 번을 겪어도 가물가물한지 모르겠다.

몇 주 전 기사에서 “일상의 루틴을 지키면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보라는 조언을 읽었다. 음 그러니까, 평소처럼 학교도 가고, 과제도 하고, 시험도 보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활력소가 될 일을 찾아보란 소리였다. 그날 밤 꼬인 마음으로 새도복싱을 하며 날을 샀다. ‘일상을 치러내고 나면, 휴대폰 들 힘밖에 남지 않는데 무슨 수로 활력소를 찾나. 그리고 어렵게 새로운 걸 찾았는데 막상 그것도 재미가 없으면 어쩐담? 그럼 더 거대한 상실감에 빠지게 될 텐데?’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SNS 피드가 벚꽃 사진으로 도배되는 걸 보니, 그사이 작은 기운 정도였던 봄이 완연해진 모양이다. 유행가 가사처럼 창문을 닫아둔 사이에 계절이 왔다. 며칠 전까지 가지만 앙상했는데 언제 저렇게 꽃이 폈나 싶다. 나의 지긋지긋한 노잼 시기도 이렇게 투덜대는 사이 지나있었으면 좋겠다. 알랭 드 보통 오빠의 말대로, 인생이 회전식이라 반복과 순환을 무한히 되풀이해야 하는 거라면, 노잼 시기 다음엔 유잼 시기(?)의 차례일 테니까.

P.S. 방금 생각났는데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투덜거려다, 노잼 시기가 끝났던 것 같다.

우리 엄마의 피로 회복은 내가 책임진다! **엄마를 위한 딸의 홈 케어 서비스**

학생 에디터 김혜원
INTERN 최은유 metaphor@univ.me

01 럭셔리 케어의 시작, 목욕



입욕제 ₩7,500
버블 바스 ₩7,900

케어의 시작은 역시 목욕이다. 엄마의 긴장한 근육을 풀어줄 따뜻한 물을 준비했다. 그리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입욕제를 톡 떨어뜨렸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우리 집 욕실이 우아한 호텔 욕실로 탈바꿈됐다. 이거 하나면 한껏 럭셔리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와, 색깔 봐. 와, 향기 봐! 처음 접하는 영롱한 입욕제에 시각과 후각이 번쩍 뜨인다. 내가 입욕제를 사올 때마다 의아해하시던 엄마가 오늘은 입욕제를 보고 즐거워하신다.

02 홈 케어 필수템 샤워 가운



샤워 가운 ₩18,900

럭셔리 홈 케어 기분을 내는 데 샤워 가운이 빠질 수 없다. 향긋한 목욕을 마친 엄마에게 샤워 가운을 건넸다. “응, 이걸 또 뭐야?” 엄마는 뭐 이런 것까지 하나며 투덜거리면서도, 꽤 즐거운 얼굴이었다.

대학가면 알바로 돈 많이 벌어 효도할 줄 알았는데, 받으면 입에 풀칠하는데 다 쓰고 없다. 22살 먹도록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나. 10만원이 생긴다면, 철저히 엄마를 위해 그 돈을 써볼 생각이다. 회사 일하랴, 야근하랴 바빠 자기에게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우리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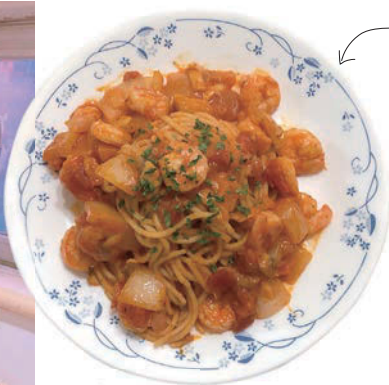
오늘 하루, 몸도 마음도 지친 그녀에게 특별한 '혜원이표 홈케어 서비스'를 선물하려한다. 비록 집이지만, 기분만큼은 럭셔리하게.

03 혜원이표 에스테틱

엄마가 목욕을 하는 동안 나는 엄마 피부에 대한 미약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스킨 케어 제품을 사 왔다. 미백 크림을 좋아하시지. 그럼, 이거면 되나? 코에 피지가 많다고 했으니까, 이거. 그렇게 고심 끝에 구해온 코 팩과 마스크 팩, 마사지 오일! 엄마를 소파에 눕히고, 에스테틱 원장님처럼 진지하게 엄마의 얼굴에 팩을 붙여주었다. 먼저 코 팩을 붙이고 노폐물을 다 제거한 뒤, 마스크 팩을 발라주었다. 그리고 엄마의 거친 발을 아기 발로 만들어줄 대망의 '악어발'을 신겨주었다. 엄마는 금방 나른해지셨다. 팩이 잘 스며들 동안 나는 엄마의 뒤통 아래와 목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했다. 엄마 어깨는 참 딱딱했다.



얼굴팩 ₩5,900
코팩 ₩2,100
발팩 ₩9,900
마사지 오일 ₩5,300



스파게티 재료 ₩15,920
케이크 ₩6,000

04 오늘은 내가 스파게티 요리사!

엄마가 팩을 하며 쉬는 동안 나는 요리를 시작했다. 오늘의 요리는 스파게티. 요리에 '요' 자도 모르는 나지만, 스파게티만큼은 양식집 알바 시절 어 깨너머로 요리법을 익혀두었기에 자신 있었다. 이제 막 면을 삶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오셨다. "잘 하고 있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가만히 앉아 계시질 못했다. 못 미더운 눈치로 계속 주방을 어슬렁거렸다. "아! 엄마, 좀 가 있어! 알아서 할게." 겨우 엄마를 보내고 다시 시작했다. 재료를 작게 썰고, 프라이팬에 볶는다. 그리고 면과 소스 투하. 그렇게 좀 기다리면 썩 괜찮은 모양새가 갖춰진다. 예쁘게 플레이팅을 하면, 찐! 생각보다 먹음직한 모습에 엄마도 놀라셨다. 의구심을 풀고 맛을 보시더니, 합격점을 주셨다. "엄청 맛있진 않지만, 먹을 만해!" 휴, 겨우 합격이었다. 그래도 첫 요리로는 꽤 성공적이다.

아직 안 끝났다! 식사가 끝날 즈음엔, 냉장고에 넣어둔 예쁜 케이크를 꺼냈다. 집 근처에 있지만, 평소에 자주 못 가는 비싼 디저트 집 케이크였다. 영롱한 자태에 한 번 감탄하고, 살살 녹는 달콤함에 또 감탄했다. 아, 기분 좋아진다!



염색약 ₩13,000
헤어 앰플 ₩4,000

05 흰머리 없애기 대작전

엄마 머리 속을 들추면 숨겨진 흰머리를 볼 수 있다.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늘어난 흰머리에 마음이 아프다. 이번에 셀프 새치 염색으로 엄마의 흰머리를 감쪽같이 없애보려 한다. 염색약과 앰플을 한곳에 모아 짜고 쓱쓱쓱 섞는다. 그리고 머리 구간을 나누어 조금씩 염색약을 발랐다. 이번에도 역시 엄마는 심히 불안해하셨다. 그리고 처음 셀프 염색을 해보는 나도 불안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이 무색할 정도로 결과가 좋았다! 새치는 싹 사라졌고, 색도 엄마의 원래 머리색과 잘 맞았다.

어느 날
갑자기 10만원이
생긴다면?



다음 주 주인공은 바로 당신!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10만원이 생긴다면 어떤 이유로, 어디에 쓰고 싶은지 magazine@univ.me 로 '10만원 사용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계획이 신박할수록, 이유가 설득력 있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첨된 분께는 10만원을 드리고, 그 생생한 사용기를 지면에 실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간은 기억하고 있다



PLAY

<카포네 트릴로지>



장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일시 2018.3.20~2018.6.17

어쩌면 친한 친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내 방일지도 모른다. 방은 내가 힘든 하루에 지쳐 쓰러지듯 잠들던 모습을,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평평 울던 모습을, 그리고 내가 이 방에서 보냈던 모든 시간들을 묵묵히 기억할 것이다.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자주 듣는 음악은 어떤 곡인지, 몇 시에 잠들어 몇 시에 일어나는지를 기억하는 것 또한 내 방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인이 바뀌더라도, 방은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듯 공간은 시간을 기억한다.

그 공간이 호텔 방일 경우엔 더욱 많은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을 것이다. 특히 20세기 초반, 범죄의 온상이었던 시카고에 위치한 '렉싱턴 호텔'의 방이라면 더더욱. '나쁜 일은 항상 같은 곳에서 일어난다'는 말처럼, 연극 <카포네 트릴로지>의 관객들은, 이 방과 함께 총 세 번의 '나쁜 일'을 목격하게 된다. 그 '나쁜 일'은 살인일 수도 있고, 사기 현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범죄 모의일 수도 있다. 불길한 호텔의 투숙객 입장이 된 관객들은 공연장 입구에 들어서 는 순간, 미국의 작은 호텔에 도착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호텔직원

복장을 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스산한 복도를 따라 걸으면, 이 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렉싱턴 호텔 661호에 들어서게 된다. <카포네 트릴로지>의 공연장은 호텔 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다. 커다란 창 바로 옆에 놓인 침대부터 화장대, 옷장, 그리고 변기를 갖춘 화장실까지. 다른 점 하나를 찾으면 방 양쪽에 놓인 100여 개의 관객석뿐. 현실감 넘치는 무대 구성 덕분에 관객들은 사건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연극 <카포네 트릴로지>는 총 세 편의 작품(<로키>, <루시퍼>, <빈디치>)으로 구성된 옴니버스식 공연이다. 모두 렉싱턴 호텔 661호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등장인물이나 줄거리가 전혀 다르기

“친한 친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내 방일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 주인이 바뀌더라도, 방은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듯 공간은 시간을 기억한다.”



때문에 세 편 중 하나만 관람해도, 혹은 순서를 뒤섞어서 관람해도 된다. 관객들은 661호에서 시카고의 쇼걸 롤라 킨을, 마피아 조직 카포네의 2인자 닉 니티를, 아내를 잃고 복수를 계획하는 경찰 빈디치를 만나게 된다. 등장인물들은 661호에서 각기 다른 일들을 경험하지만, 관객의 입장에서 세 편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지점이 보인다는 것이 이 극의 재미 요소다. 이에 더해 <카포네 트릴로지>는 ‘좁은 호텔 방’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덕분에 배우와 관객과의 소통도 매우 자유롭다. 배우들은 의자에 앉겠다고 말하며 관객의 무릎 위에 살짝 앉기도 하고, 옷장 문 여는 시늉을 하며 관객의 손 위에 옷을 올려두기도 한다. 배우들의 재치 있는 대사와 짜임새 있는 스토리에 울고 웃다 보면 어느새 공연은 끝이 나고, 공연장을 나서며 바로 다음 공연을 예매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편만 보려고 했다가 세 편을 다 보게 되고, 세 편을 다 보고나면 다른 캐스팅을 보기 위해 다시 공연장을 찾게 되는 것이 <카포네 트릴로지>만의 마성의 매력이다.

<카포네 트릴로지>를 보고 난 후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공간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을 상상해보는 버릇이 생겼다. 물론 그들은 이 공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과 내가 같은 장소에서 호흡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왠지 친밀한 기분이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생겨난 교점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니가.

다른 시간대의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는 작품을 더 보고 싶다면

+

DRAMA <This is Us>

<This is Us>의 이야기는 똑같은 생년월일에 태어난 사람들, 그 각각의 이야기인 것처럼 시작된다. 하지만 알고 보면 서로 동떨어진 타인의 것들이 아니다. 한 가족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를 각기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시점에서 담고 있는 것이다. 다른 시간대의 이야기들이 모여 가족의 과거와 현재를 따스히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 이 드라마의 감동 포인트.



PLAY <더 헬멧-Room's Vol.1>

<더 헬멧>의 무대는 간이벽을 통해 찾는 사람들의 공간인 빅 룸과 갇혀 있는 사람들의 공간인 스몰 룸으로 나뉘어 있다. 관객 또한 벽을 사이에 두고 두 공간으로 분리된다. 각 공간의 사람들은 ‘헬멧’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같은 시간대, 혹은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코 다르지 않다.



MOVIE <더 테이블>

한 카페의 테이블에, 아침부터 밤까지 여덟 명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간다. 각기 다른 네 쌍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어쩌면 한없이 달콤하기도 하고, 외줄타기를 하는 듯 아슬아슬하기도 하다. 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테이블에서 흐르고 있는 시간들을 따라가다보면, 여덟 명 모두의 삶을 마주치게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10만원이 생긴다면?

대학내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10만원이 생긴다면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어떤 이유로 어디에 쓰고 싶으신지 '10만원 사용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계획이 신박할수록, 이유가 설득력 있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첨된 분께는 10만원을 드리고, 그 생생한 사용기를 지면에 실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메일 magazine@univ.me

※ 제목에 [10만원] 포함

Ex.[10만원] 사용계획서 보냅니다!

※ 본문에 이름/학교/연락처 기재 필수

20 대학내일 ₩100,000원

글 솜씨 뽐내고 원고로 받기! 20's V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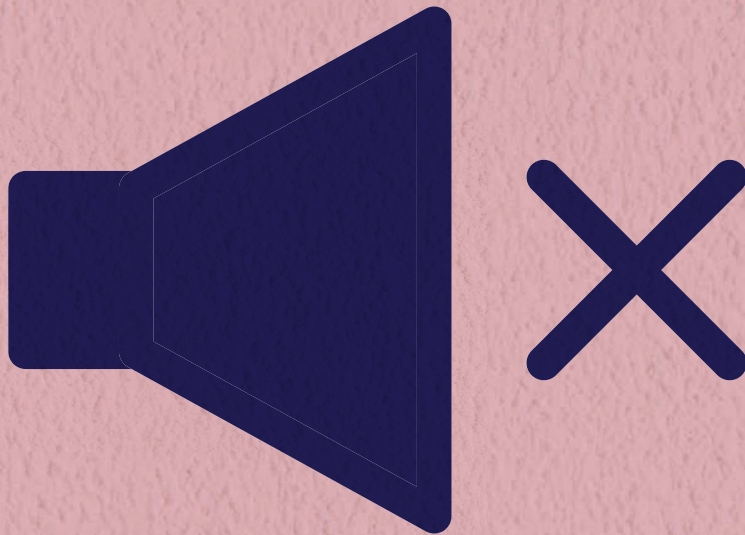
20대라면 누구나 대학내일에 글을 기고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겪고 느낀 솔직한 이야기를 A4 1장(원고지 10매 이내) 분량으로 보내주세요. 지면에 글이 실린 분들께 원고료 10만원을 보내드립니다.



메일 magazine@univ.me

※ 본문에 이름/연락처 기재 필수





우리가 무음 모드를 택한 이유

여럿이 모인 술자리에서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굳이 입을 열지 않는 사람. 비슷한 말로 내부자와 국외자,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드, 다수와 소수, 주류와 비주류 등이 있다. 전자는 높은 볼륨으로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후자는 그것에 반응하거나 반응하지 않으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에 의의를 둔다. 주로 전자의 의견은 '맞는 말'로 끝맺음되고, 후자의 의견은 다수의 기억 속에서 쉽게 '휘발'되어 버린다. 이 지긋한 레퍼토리가 반복되다 보면, 후자는 차라리 자신의 음을 소거하는 쪽을 택하게 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수가, 큰 목소리가 늘 옳아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는 것. '무음 모드'를 유지한 채 주류가 흘러가는 방향에 무던히 섞여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나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6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다'고 쉽게 단정 짓기는 금물. 들리지 않기에 보이지도 않는 목소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페이지를 넘겨보자. 어디에나 있고, 또 어디에도 없는 목소리의 형태를 찾아서.

EDITOR 김혜원 hyewon@univ.me INTERN 최은유 학생 에디터 김은지 문소정 정다빈 ILLUSTRATOR 남미가

여자는 꽃이니까
가만히 있어~

@#!\$%^&*+?/#!

네가 연애
안 해봐서 그런가.

넌 군대 얘기 하지 마

%^@#!\$

#&*+?

혹시 남자한테
데인 적 있어?

여자가 하기
힘든 일인데

공익이 뭘 알겠어



@#!\$%^&*+?/##

몇 학번이에요?

무슨 과?

백만원 주면
고기 먹을 거야?

저 나이에 왜

학교에 왔지?(수근수근)

네가 고길 안 먹어서

피곤한 거야

조교님인 줄 알았어

아...
학생 아니시구나

%^@#!\$

#&*+?



대학은 안 갔고요, 회사 다닙니다

대학생이 아닌 20대, J씨



제가 이른 나이에 취업한
이유가 정말로 궁금하세요?



스무 살. 친구 대부분이 대학에 갈 때 저는 직장인이 됐어요. 집안 사정이 좋지 못했어요. 처음엔 졸업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진학하려고 했는데… 마침 군 문제와 학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질문과 차별

“몇 살이에요?” “스무 살이요.” “새내기! 좋겠다. 어디 학교예요? 무슨 과?”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친구들과 시작점이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해야 했어요.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 잔소리 듣는 거 정도는 이제 익숙해요. 대리님, 부장님 그리고 기타 어른들께 구구절절 제 상황을 설명하고 나면,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표정을 합니다.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할 텐데.” “어린 나이에 딱해서 어찌니.” 그 걱정 어린 시선이 거북하다면 제가 너무 고인 걸까요? 대학생이라면 이런 말 안 들었을 것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하다 보니 차별 아닌 차별을 받을 때도 많았어요. 일을 잘하든 못 하든 ‘나이’라는 말이 수식어처럼 꼭 붙더라고요. “어린데 일은 꽤 잘하네?”부터 “어린애가 뭘 알아”까지.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걸 회사 생활 하면서 제대로 배웠죠.

남들과 다르다는 것에 집착하면 괴로우니까, 그냥 인정

어쩌다 대학에 다니는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개네가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복전 하길 잘한 것 같다.” “개파라서 늦었다.” “중도 들렀다가 가겠다.” 뭐라 맞장구를 쳐야 할지 몰라 난감하고 상실감도 느껴져요.

하지만 저는 이미 친구들과 다른 방향에 와 있잖아요. 여기서 남들과 다르다는 것에 집착하면 괴롭기만 하니까,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요. ‘나는 왜 대학생이 아닐까’ 자괴감을 느끼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수용하고 익숙해지려고요. 사실 대학생이 아니라서 좋은 점도 있어요. 비교적 돈이 넉넉하니, 뭔가를 사는 데 자유롭잖아요. 내 능력으로 먹고 싶은 걸 사 먹고, 취미 활동에 부담 없이 투자하는 지금을 즐기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이십대가 대학에 다니는 건 아니랍니다. 만나자마자, 대학, 전공, 학번을 묻기 보다는 차라리 좋아하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그럼 저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개인사를 꺼내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게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채식주의자인 걸 왜 말하지 않았나면...

육식 지상주의 속 채식주의자, S씨



내가 채식주의는 걸
네가 굳이 이해할 필요 없어



“저... 근데 제가 고기를 안 먹○... 네, 베지테리언이예요. 아! 다 안 먹는 건 아니고 고기만 안 먹고, 생선이랑 달걀은...” 누군가와 처음 식사를 하게 되면 늘 반복하는 말입니다. 이젠 꽤 익숙해요. 채식주의 2년 반 정도 돼거든요.

‘불편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많은 친구들에게 ‘첫 채식주의자 지인’이었어요. 채식은 네팔에 NGO 일 하러 갔을 때 시작했어요. 네팔은 채식 인구가 아주 많은 국가예요. 그래서 채식을 한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주목받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친구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격하더라고요. 점심으로 찜닭을 먹자기에, 거절할 핑계가 생각 안 나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나... 고기 안 먹어.” 그랬더니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도대체 고기를 왜 안 먹냐” “건강 해치면 어떻게 하냐” 많은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거의 역정을 내듯 흥분한 친구 때문에 사실 좀 화도 나고 슬펐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시적인 비주류가 됐음을 느낀 순간이었죠. 그 이후 누가 묻지 않으면 굳이 채밍아웃(?)을 하지 않았어요. ‘불편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 때문에 상대가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상황이 싫었고, 무엇보다 채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매번 설명하고 설득할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입을 다문다고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소개팅 나가서 적당히 고기가 안 들어

갔을 법한 피자를 시켰는데 햄이 잔뜩 없어진 피자가 나와서 토핑만 깨작거리다 “밥 먹기 싫냐”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인턴 생활하는 동안 채식하는 걸 말 안 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선배가 “왜 말하지 않았냐”며 섭섭해 한 적도 있었어요.

이해를 바라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땐 삼겹살을 외치는 육식 만능주의 세상에서 버티다 보니 나름의 요령이 생겼어요. 약속을 잡을 때 식당은 내가 먼저 알아보기. 상대가 식당을 제시하면 미리 메뉴판 찾아보기. 그동안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채식주의를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채식 메뉴를 마련하는 대학도 많아졌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채식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하지만 살다 보면 또 채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밥 한두 끼 정도는 무난하게 넘길 수 있는 요령이 생겼으니까요. 말이 나온 김에 한 마디 덧붙일게요. 어디에 선가 베지테리언을 만난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채밍아웃을 한다면 그냥 “그렇구나” 해주시면 좋겠어요. 채식은 저의 선택이지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대체 어디로?

남초 대학의 여자 공대생, L씨



공대 아릅이? 됐고,
성차별이나 좀 하지만



저는 공대생이에요. 여자가 공대에 다닌다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공대 아릅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부터 주위에서 말이 많았어요. ‘공대 아릅이라 좋겠다’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부터, ‘여자는 체력이 약해서 공대에서 적응하기 힘들다’는 악담까지. 사실 그런 말들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흔하게 들어왔던 말이니깐요. 그렇게 성비 8:2, 남초 사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축구 동아리 뒤풀이에 여자 매니저가 참석해야 하는 이유

입학 후 축구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축구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자는 선수로 활동할 수 없대요. 제게 주어진 역할은 ‘매니저’, 하프타임에 남자 선수들에게 물을 건네주는 게 다였어요. 한 번은 같은 과 남자 동기가 매니저들에게 경기 뒤풀이에 참석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경기에 진 날 뒤풀이에 여자애들이 없으면 분위기가 험악해진단나. 세상에 2018년 캠퍼스에서 그런 소릴 들을 줄이야. 동아리에 필요한 건 매니저가 아니라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풀어줄 여자였어요. 기분이 나빴지만 딱히 티를 낼 수 없었어요. 모두가 그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악습에 제동을 걸 용기가 없었어요. ‘홍보 포스터에 ‘매니저 환영’이라고 크게 써 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후회하며 동아리를 그만뒀버렸죠.

갑분싸가 두려워 말 못 하는 것

어느 날은 전공 교수님이 수업 중간에 여학생들에게 “문제 푸는 거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 할 시간에 남자친구 부모님이나 뵙고 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화가 났지만 문제 제기할 용기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고, 수업은 그대로 잘 진행됐어요. 여자는 학업 대신 결혼. 사실 이제는 별 타격이 안 될 정도로 흔히 듣는 말이에요. 산업 쪽이든 연구원 쪽이든 여차피 여자라서 잘 못 하고, 여자라서 오래 못 한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들어도 다들 대강 웃어넘겨요. 저는 제 생각을 말하면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걸까 봐 입을 다물고요. 한번은 자기들끼리 페미니즘을 논하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지” 하는 걸 들었어요. 대체 어디로 떠나라는 걸까요. 졸업한다고 해서 편견과 차별이 없어질까요? 아닐 거예요. 캠퍼스에선 그런 교수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 똑같은 소릴 할 테니까요. 학교에 가면 매 순간 하지 못한 말이 입가를 맴돕니다. “공대 아릅이 대접은 필요 없으니까. 성차별이나 좀 하지 마. 너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처럼, 나도 내 능력을 존중받고 내 선택을 존중 받길 바라.”

내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연애헌국의 비연애주의자, K씨



상처 X, 사연 X,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어딜 가나 사람이 넘치는 연애헌국에서 연애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들 연애를 위해 사는 사람들 같아요. 처음 만나면 이름 다음으로 묻는 것이 “애인 있니?”니까요. 이 질문 사실 굉장히 실례 아닌가요? 사생활을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애헌국에선 실례라고 생각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상처가 아니라 취향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고 취향입니다. 제가 연애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살다 보면 연애를 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있는 건데, 큰일이라도 난 듯 아단을 떠는 게 불편합니다. 흔히들 좋은 나이에 연애를 안 하면 청춘을 낭비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개인에 대한 이해 없이 본인의 관점에서만 말하는 거죠. 언젠가 연애를 하게 된다면, 제가 진짜 원할 때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연애를 안 해도 살아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불쌍하고 짝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딱히 외롭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연애는 곧 행복이고 비연애는 불행이라는 공식이 이상하지 않나요? 연애를 위해 억지로 사람을 만나는 게 제겐 더 스트레스인데요.

들었던 말 중 가장 기분 나빴던 것도, 본인의 입장에서 멋대로 저를 평가한 말이었어요. 새로 만난 사람들과 막 친해지려던 참이었어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연애 이야기가 나왔고, 전 관심이 없다

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돌아온 말은 “남자한테 데인 적 있어? 무슨 안 좋은 상처라도?”였죠. 아니 연애에 관심이 없으려면 꼭 상처가 있어야만 하나요? 그런 거 전혀 없는데요. 다만 굳이 억지로 애인을 만들어야 하나 싶은 것인데,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난데없이 트라우마 있는 사람 취급을 받으니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말을 말지

연애 이야기를 하다 다툼 적도 있습니다.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닌 친구였는데 “왜 해 보지도 않고 판단 하나”며 훈계를 늘어놓기에, “연애도 연애 나름이지. 너처럼 아무나 만나서 사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하고 쏘아 붙였습니다. 알아요, 무례했던 거. 무례엔 무례로 답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연애 주제의 대화에는 애초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제가 바뀌길 기다리거나,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요. 저 나름의 요령이 생긴 거죠. 하지만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특히 연애 좀 한다고, 불필요한 조언(이라 쓰고 참견이라 읽는)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애인 같은 사람 사귀 바엔 나 혼자 살래!”

투명 인간도 아니고 투명 화석입니다

20대 사이의 30대 만학도, K씨



내가 만학도라고 해서
초들갑 떨지 말아줘



스무 살 때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어요.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대한민국에서 '고졸'로 산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는 걸 문득 깨달았죠. 결국 직장 생활과 알바를 전전하며 학자금을 모아 2017년 2학기에 재입학했습니다.

알아서 피하는데도 꼭 그래요

과에서 저는 투명 인간에 불과해요. 16학번도 고학번이라며 꺼리는 마당에 30대가 어떤 취급을 받겠어요. 언제 한번 사람을 모집할 일이 있어 동아리 회장을 통해 단체 카톡방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회장으로로부터 따로 메시지가 오더군요. '죄송하지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후배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저도 용건 끝나면 바로 나갈 생각이었는데... 크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지만 맘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제는 조별 과제가 있는 수업에서 조를 내 뜻대로 짤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아요. 옆에 앉은 아무 학생이나 붙잡고 "같은 조 하실래요?" 묻기도 쉽지 않고, 후배님들 불편하실까 눈치보다보면 마지막까지 조를 짜지 못한 최후의 1인이 될 수밖에요. 그럴 땐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수업 끝나고 교수님

을 찾아가 "조를 못 짰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말을 10번 정도 했어요. 결국, 조별 과제는 개인 리포트로 대체했지만 예상대로 성적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민하지 말고 존중해주세요

사실, 캠퍼스에서 30대라서 겪는 불편은 20대와 대화할 때 말고는 그리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대학생에게는 '수업'이 대학 생활의 전부이지만, 제게는 '수업'이 전부거든요. 과 활동, MT, 동아리 등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니까요. 학업 관련해서는 교수님들이 나이 많은 저를 좀 챙겨주시기도 해요. 학우들과 함께하는 수업 중에는 다소 불편할 때가 있지만, 교수님과의 1:1 커뮤니케이션에서는 20대 초반 때보다 오히려 편한 것 같고요.

저도 과거에는 여러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며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과 비교해보면 둘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 남들처럼 왁자지껄 떠들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0대 만학도로 사는 게 꼭 힘든 일은 아니라는 것도요. 캠퍼스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다양한 '그들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왜 공익이냐면요...

정병제 국가의 사회복무요원, L씨



안간게 아니라
못간 겁니다!



저는 꿈이 아니고 사람인데 주변에서 자꾸 '꿈 뺀다고 한마디씩 해요. 네, 저는 공익이에요. 어느덧 6개월 째 소방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현역으로 입대했는데, 훈련소에 있던 어느 날 당뇨병이라며 갑자기 퇴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공익이 됐죠.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

친구들을 만나면 군대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데요. 불쑥 현역인 친구로부터 "공익은 어때냐? 나는 힘들었는데"라는 말을 들을 때면 할 말이 없어져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너는 솔직히 군대 얘기 하지 마라", "맨날 꿈 뺀면서 지내는데 뭘 얘기야"라는 식으로 입막음을 당하니깐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군대와 관련 없는 고민을 털어놓을 때도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에요. 그래도 친구들에 비해 퇴근 후 생활이 비교적 자유로우니까, 그런 말 들으면 그냥 웃어넘기고는 해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니야

사실 저는 스무 살 때부터 2년간 현역 입대를 위해 계속 노력했어요. 군대 가려고 심지어 휴학까지 했죠. 그렇게 겨우 입대한 건데

퇴소를 당하다니... 남들 다 가는 군대, 나만 못 가서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퇴소당했냐? 몸 관리 좀 하지." "빨리 다시 군대 가라." 걱정 아닌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죠. 좀 덩치가 있는 편이라, "멀쩡해 보이는데 왜 보충역이냐?"라는 말도 상처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사람을 피해 다녔어요.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입을 열면 자기 관리를 못 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점점 무뎌져서 솔직하게 제 병에 대해 설명하고, 가볍게 웃으면서 현재 상태를 말하려고 노력해요. "나 운동하면서 살도 빠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한다!" 이제야 보이는 거지만, 악의를 가지고 저를 무시한 거라기보다 부러워서 한마디씩 던지는 게 더 크더라고요.

요즘 제 가장 큰 고민은 병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사후에 한 번씩은 직접 손가락 끝에 바늘을 찌러 혈당 검사를 해야 하는데, 손이 저려서 힘들기도 하고요. 마냥 '좋겠다'는 말을 듣기엔 극복해야 할 일이 많아요. 이 자리를 빌려, 제 병이 절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 피병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것' 이야기하고 싶네요.

무례함에 지쳐 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작가 정문정

인터뷰를 앞두고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을 펼쳐 들었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책에 대한 경외감 한 스푼, 사무실에서 같은 미세먼지를 흡입하던 선배에 대한 질투도 두 스푼 정도 담아 읽어 내려갔다.

무척 쉽게 읽히는 글이었지만, 쉬운 글은 아니었다. 80년대생, 여성, 대구 출신, 사회학과 졸업, 10년 차 직장인, 20대 미디어 「대학내일」 디지털미디어 편집장. 작가의 한 줄 프로필이 생각보다 많은 말을 해주듯, 한 권의 책은 더 많은 상처와 극복의 역사를 담고 있었다.

책 한 권을 사이에 두고 많은 질문을 했고, 많은 답을 들었어도, 내가 진짜로 묻은 건 단 하나였던 것 같다. 세상의 무례함에 지쳐,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66

출간 4달 만에 18만부를 찍었다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사는 건 대체 어떤 기분인가요?

이전에도 저는 지금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글을 쓰고 있었지만, 요즘은 저의 말과 글에 어떤 '영향력'이 생겼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지금은 독자들에게 받은 이 힘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죠. 회사에도 감사하는 눈들이 많아져서, 뭐만 하면 무례하다고 하니까.(웃음)

한동안 정문정의 연관 검색어가 '무례한 사람'이었는데, #METOO 운동이 활발해진 무렵부터는 '페미'가 함께 뜬다고...

저는 책을 통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권력 문제 전반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잘 전달하기 위해 '내 이야기'에서 출발한 것뿐이고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살아남으려 애써온 한 여성의 시각이 담긴 거죠. 갑질과 마찬가지로 #METOO 운동 역시 단순한 남녀 갈등이 아니잖아요. 타인을 깎아내리려는 권력관계와 억눌렸던 약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또 하나의 사건인 거죠.

세상 사람들도 다 비슷한 고민을 하나 봐요. 일본·대만·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도 출판이 확정됐어요.

공감을 얻는다는 건, 그곳에도 무례함과 비매너에 지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서문에서도 말했듯, 이 책은 김무성의 '노 룩 패스' 때문에 쓰게 됐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일주일간 잊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그에게 잘못되었다고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두가 과몰을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깊이 고민하다보면 자아성찰을 하게 되잖아요. 스스로가 무례하다고 느낀 때도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저에게 무례한 타인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무례한 사람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알고 있으니깐 좀 덜 끈대이려나?(웃음) 분위기를 좋게 만들겠다는 책임감에 무리수를 던질 때가 자주 있거든요. 그때 후배들이 "방금 발언 문제 있는데요? 신고할 거예요!"라고 제지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지적하지 않으면 재밌어한다고 영원히 착각하게 될 테니까요. 주변에서 어려워 말고 계속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방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제지해주는 거죠. '무례 게'처럼.

무례한 사람에게 왜 정색하는 대신 웃어줘야 하고 묻는 독자들도 있었어요.

'웃으며'는 '하하하' 웃거나 미소를 짓자는 뜻으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정반대로 무례함에 휘말리지 않고, 나의 페이스를 지킨다는 뜻이죠. 무례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가장 최후에 선택해도 돼요. 화내고 안 보면 그만이고, 굳이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무례한 사람은 대부분 '갑'이잖아요. 이 사람을 안 보면 내가 손해인 관계. 그렇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욕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딱딱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죠. 또 정색하거나 화를 내면 효과가 반감될 때도 많고요. 전 농담을 많이 섞는 편인데, 그럼 대부분 비판이 부드럽게 받아들여져요. 퇴근 무렵 전화하는 상사에게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거예요. 딱지 날라가요~" 하는 식이죠.

웬지 처음부터 '만렙'이었을 것 같은데, 작가님의 20대는 어땠나요?

사실 후배들에게서 저 자신을 많이 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고 자주 문제가 생겼거든요. 스무 살부터 서비스업 알바를 많이 했는데, '갑질'이나 무례한 상황도 많이 만났죠. 팝콘을 얼굴에 던진대거나, 미성년자 입장처럼 법적으로 금지된 요구를 한다거나. 직장을 다니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웬걸. 입사했더니 제 취향을 물어보면서 "기껏해야 그거 좋아하니?"라고 느닷없이 모멸감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때의 저는 '강아지가 꼬리 흔드는 것 같다'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좋고 싫음이 너무 티가 나는 상태였거든요. 대처하는 방법도 몰라서, 아예 참거나 정색하며 화내거나. 둘 중 하나였죠.(웃음)

저 부르셨나요? 갈수록 무례한 상황이 불편하고, 예민해지고, 그게 또 티가 나요...

저도 평생 스스로가 예민한 줄 알았어요. 다들 그러니까요. 사회생활 안 해봐서, 군대 안 가봐서 티를 낸다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너 성격 단순하고 좋은데 왜 자꾸 예민하다고 해?"라는 거예요. 그제야 사회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정글에서 초식동물은 예민해야만 살아남잖아요. 체구가 좋은 제 남동생이 기본적으로 세상은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웃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의 평화' 같은 든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일상의 기술 아닐까요? 매일같이 스트레스에 부딪치고 휩쓸리는 속세에 사니까, 단단히 버티는 자기만의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거죠. 우아하게 잘 거절하는 법, 싫은 소리에 잘 대처하는 법처럼. 누가 10년 전의 저에게 알려주었다더라면 했었던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인터뷰 메인 사진은 책 표지와 싱크로율 100%에 도전해 보았다

그렇게 불쾌한데도, 다들 감추고 웃는 건 잘하지 만 정작 대처는 잘 못 하죠.

처음부터 대단하게 받아치겠다는 생각을 하면 어려워요. 무례한 '얼평'에 "상처 주네?"라고 대꾸했던 김숙 언니도, 또 이효리 언니도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한 언니들은 대부분 최소 10년 이상의 내공을 쌓은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데' 눈치 보는 것부터 버리고 시작해야죠. 웬만한 것은 관대하게 넘어가주되 비굴해질 필요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쁜 것을 돌려서 표현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불쾌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말을 고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전 그렇지 않았는데." 정도로 동의만 안 해도 괜찮아요. 말할 수 있다는 용기가 중요한 거지, 센스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무 어렵다면, 통래했던 말들을 수집해서 레퍼토리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무례함을 참아 넘기지 않자보면 나름의 '표현 근육'이 생길 거예요.

저희 같은 초식동물들이 무례한 요구를 하는 절대 권력자에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특히 교수님이라거나, 갑님이라거나, 고용주라거나(대표님 눈 감아).

모든 관계에서 나도 꿀릴 것 없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태도를 가져야 해요. 그래야 위사람에게도 덜 위축되고, 아랫사람은 더 배려하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무작정 들어받는 건 위험하지만요. '이런 사람이 주는 돈은 안 받고 안 쓰겠어', '이런 사람이 주는 학점은 4년 내내 D여도 좋아'란 결심이 선다면 돌아서도 돼요. 하지만 관계를 '좋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전 따르는척 하다가 수궁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핑계를 찾았던 것 같아요. 학부생 때, 방학 동안 저더러 교수님 화분에 매일 물을 주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당신은 휴가 가신다고(웃음) 방학 때는 집안에 일이 있어 다른 지역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서는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가족 중 위독한 분 좀 급조하면 어떤가요.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꼭 100% 진심으로 대할 이유는 없어요.

핑계가 통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무작정 똥군기를 잡는 꼰대 선배라거나.

맞아요. 권력관계도 확고하고, 정말 어찌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죠.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넌 쓰레기를 쳤지만 난 안 받았어.'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더 중요해져요. 표면적으로는 갑의 무례함을 참고 넘기는 것과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내면은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 마음속으로 '마지노선'을 정해두고, 그 선까지만 기회를 주고 사람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벗어나면?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죠. 옆집 강아지가 사람을 향해 짖는 게 큰 일이 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보면 20대라고, 어리다고 모두가 무해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업무상 대학생을 자주 만나는데, '나도 무례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봤다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분명 20대는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약자가 맞지만, 언제나 피해자고 무해하진 않아요. 저만 해도 소소한 무례를 종종 겪는 걸요. 밤 10시 넘어 문자나 카톡을 보내온다든지, 또는 메일이 '제목 없음'으로 온다든지. 그럴 땐 퇴근 전에 연락을 달라거나, 제목에 용건을 언급해 달라는 식으로 차근차근 방법을 다시 알려줘요. '상식'이지만 정말 몰라서 그랬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우리 모두가 무례할 기회나 상황을 못 만나서, 무례하지 '못'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야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기회를 주는 것도 가능해지죠.

꼰대들은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고 쳐도 가족이 무례할 때는 난감해요. 당장 나갈 수도 없고.

어릴 때는 저도 부모님에게 기대하는 게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왜 언제 어느 때나 공평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지 않지? 왜 부자가 아니지?' 그런데 20대가 되고 자립을 하니까 부모님과 나를 분리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도 25살에 첫애를 낳은 미숙한 남자와 여자였던 거죠. 나와 부모님 모두 서로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을 버리려면, '물리적인 거리'도 필요해요.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사는 취준생 자녀 사이가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이유죠. 부모님은 자랑거리가 자식 밖에 없고, 자녀는 자존감이 바닥까지 낮아진 상태라면 더더욱. 현실적으로 독립이 어렵다면, 마음의 거리만이라도 떨어뜨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나가 살면 월세비도 들고, 그 돈을 벌려면 알바를 해야 할 테니, 그 순간만 부모님을 '집주인'이라 생각하자고 자신을 다독여보는 거죠.

그나마 다른 관계는 비교적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친구들도, 남친이나 여친의 무례한 후려치기에는 우물쭈물 넘어가더라고요.(반성)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말을 해서 떠나면 어떡하지?' 수동적인 생각이 악순환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라도, 무례한 지적이라든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자주 해야 해요. 20대 초반에는 아무래도 선배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저도 "네가 어려서 잘 모르니까 오빠가 알려주는 건데"라는 말 참 많이 들었는데





요(웃음) 지금은 한두 살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도 아무것도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넌 그래서 취업 못 하는 거야, 너무 예민해, 너무 살이 찼어.” 이런 말들에 같은 논리로 되값 아주는 것도 효과 있어요. “너 거울은 보지? 내가 45kg면 널 만날까?” 농담만 해줘도 깨달음을 얻을걸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도저히 웃을 수 없는 무례함에는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지금 불쾌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기분이 나빠도 되는 건가요?” 이상하게도 여성 후배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감정은 너무나 본능적이고 주관적인 거잖아요. 원초적인 감정까지 누군가에게 검열 받을 이유가 없어요. 얼마 전엔 친한 대학생 후배가 머리를 잘라야 하는지 묻더라고요. 이유는 사수인 선배가 머릿결 나쁜 사람을 싫어해서라고. 그게 대체 무슨 개소리입니까? 가치 없는 사람에게까지 감정을 쏟지 말아요. 개선의 여지가 없고, 너무 많은 쓰레기를 주는 사람에게까지 웃어줄 필요 없죠. 특히 업무나 학업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개소리라면, 단호해도 됩니다.

구제가 불가능한 개소리에는 단호해도 되는군요.

분명한 건, 무례한 사람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줘도, 무법한 사람에게까지 웃으며 대처할 순 없다는 거예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그렇죠. 을일수록, 어릴수록, 여자일수록, 한마디로 권력관계에서 약자일수록 당하기 쉬운 범죄잖아요. 하지만 주변에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오해한 거겠지.” 프레임을 씌우거나, “더 조심했어야지. 왜 NO 하지 않았어?”라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피해자가 하기 쉽지 않으니 서로서로 도와줘야 해요. 침묵하고 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 친구 아버지도 안 하시는데, 딸 같아서 만지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아예 함께 자리를 떠나버리세요. 스스로 세운 계획조차 믿기 힘든데, 의심스러운 사람의 변명은 애초에 들어주지 맙시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막상 닥치면 ‘이런다고 바뀔겠어?’ 무기력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체념하고, 무기력해지고, 시니컬해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노 콘돔 섹스’를 요구하는 구남친들을 그냥 방치했더니, “구여친은 괜찮았는데 너는 왜 유난스럽게 그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래도 된다, 문제가 없다’고 학습시켜준 거죠. 앞으로 그 사람을 만날 무수한 사람들 인생에도 나쁜 일이겠죠. 구시대의 악습은 우리 선에서 끝내겠다는 동지 의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책을 덮고 나서, 결국 모든 ‘대처법’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행복하고 씩씩하게’가 인생의 모토 중 하나예요. 대학생 때는 무례한 진상들을 만났을 때 ‘내가 못 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사람이라서, 내가 여자를 주었기 때문에’라고 스스로를 탓할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길 가다가 누가 나를 찔렀다고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결코 스스로를 원망하고 미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나부터 바뀌겠다는 의지, 사회가 변할 거라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낙관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지금이 현실주의자라서예요. 어차피 살아갈 인생이라면, 웃으며 사는 게 이득이니깐요.

무례함 대처 능력 만렙을 찍고,
파워 당당하게 프로필을 찍은 작가



Point 1

남는 건 지식이 아니라
암기 스킬

“시험 시간은 50분입니다. 시작하세요!” 자, 이제 암기한 걸 다 토해낼 시간이다. A4 두 개를 붙여놓은 크기의 종이 앞뒤에 외운 걸 콕콕 채워 넣어야 한다. 써낸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를 잘 준다나 뭐라나. 시험이 끝나면 모두 손이 아파 손목을 탈탈 터는데, 애써 외운 것들도 같이 탈탈 털리는 기분이다. 내가 뭘 배웠... 아니, 외웠더라? 오늘도 남는 건 지



린 손뿐, 지식은 없다는 게 이 감지 시험의 진정한 함정이다. 그런데도 이 허탈한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 전날까지 수많은 감지를 복제해야 했다. 하나라도 더 외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머리는 터질 것 같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외우다 보면, 혼란이 온다. 내가 하고 있는 게 공부인가, 별짓인가. 교수님, 과목명을 바꿔시다. '커뮤니케이션의 이해'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암기'로요!
(제보자 김혜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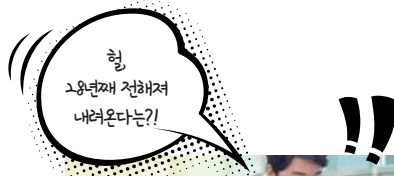
사진 출처 <청춘시대>

대학 시험은 다들 잘 알았는데 중간고사 뺄침 포인트 6

Point 2

끼리끼리
족보, 족보 쟁탈전!

시험이 끝났다. 망친 거 같아 우울한데, 옆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야! 족보랑 문제 완전 똑같았어! 개이득.” 망할, 족보가 있었어?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된 족보의 존재. 느낌이 온다. 이번 시험도 망했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족보로 시험 문제를 풀줄 꿰고 있는 애들이랑 무슨 게임이나 될까. 출발선 자체가 다르잖아! 족보를 얻어 시험을 본



친구가 말했다. “친구가. 인맥이 없으면, 학점도 없는 거야.” 완전한 개소리였지만, 현실이 그랬다. 교내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험은 불리한 게임이다. 족보가 끼리끼리 돌기 때문. 학생회끼리, 동아리끼리. 그 ‘끼리’에 속하지 않는 나는 어찌라고? 족보 때문에 잃는 건 학점뿐만이 아니다. 친구도 잃는다. 족보를 구하고선 혼자 시치미를 뚝 떤 친구의 모습에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화나는 건 학점도 우정도 다 망치는 이 ‘족보’의 이해될 수 없는 망할 현실이다. (제보자 최연지)

사진 출처 <치즈인더트랩>

Point 3

오픈북이면 뭐 하나
뇌가 오픈이 안 되는데

“이 과목 시험은 오픈북입니다.” 오예! 개꿀이고만. 그냥 책 몇 번 읽고 중요한 개념 외워 가면 되겠지. 그리고 대망의 시험 날, 걱정 없이 시험 보러 갔다가 나라 잃은 표정으로 시험지를 냈다. 지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애초에 문제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책이 옆에 있으면 뭐 해, 쓸모가 없는데... 그렇게 시험을 완전히 망치고 나서야 깨달았다. 학생들



편하라고가 아닌, 책이 있어봤자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오픈북으로 시험을 본다는 걸. 나는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전략적으로 기말고사를 준비했다. 책 내용뿐만 아니라 몇 페이지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도 달달 외우고, 컴퓨터마다 포스트잇을 덕지덕지 붙여가며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다들 나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포스트잇으로 책장 넘기는 소리가 시험 치는 내내 들렸을 지경. 다행히 이 전략이 통해서 A+를 받긴 했지만... 교수님, 이 시험은 도대체 무얼 위한 시험인가요? 인간 Ctrl+F 되기?

(제보자 문소정)

사진 출처 <무한도전>

Point 4

시험 범위가 거의
팔만대장경급

수강 신청을 앞두고 '고대 신화의 이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어릴 때 자주 보던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오버랩되는 순간. 내가 또 한 신화 하지. 기대를 가득 안고 들어간 수업은 멘붕이었다. 추상적인 사상과 비슷비슷한 신 이름... 게다가 수업 자료는 또 왜 이렇게 중구난방인지. 수업 진도는 정작 교재로만 나가면서, 교수님은 사이버 자료실에



관련 논문과 프린트물을 가득 올려놓았다. 자료가 광범위하니 정확한 시험 범위라도 알려줄 줄 알았지만, 그냥 한 번씩 읽어보라며 어물쩍 넘어가신다. '설마 이 많은 걸 다 내겠어? 책에 나오는 신만 외우기도 힘든데.' 불행한 예감은 왜 틀리질 않는 걸까. 자료실에 있던 모오-든 자료들에서 문제가 골고루 출제된 것이다. '에피메테우스, 네레우스, 에로스, 에리스...' 책에 나왔던 신 이름만 중얼거리던 나는 결국 나만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창조하고 시험장을 나와야 했다. (제보자 하지윤)

사진 출처 <치즈인더트랩>

중간고사 기간이 닥치면 캠퍼스 내에 학생들의 곡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초등학생 때부터 시험을 봐온 시험 전문가인 그들 모두가 입을 모아 대학교 시험이 더 '빡친다'고 말한다. 대학생들 울리는 중간고사 빡침 포인트를 모아봤다.

학생 에디터 김혜원, 문소정

Point 5

시험+리포트+발표
몰아주기 있기, 없기?

휴, 다행이다. 이번 중간고사는 다섯 과목이라 조금 벅차지만, 시험이 하루 간격으로 있으니 전날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겠네. 오늘은 A 과목 복습 끝내고, 내일은 B 과목 시작해야지. 나름대로 치밀하고도 철저하게 일정을 짜놓았는데, B 과목 교수님이 갑자기! "아, 우리 보고서 있었죠? 그건... 시험 치는 날 조교한테 내면 되겠네." 되긴 뭐가 돼! 게다가 다



섯 장짜리 영문 보고서러니. 아니, 저희가 교수님 시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수업 교수님이 인자하게 말씀하신다. "그럼 이번 주부터 팀플 발표를 시작해볼까요?" 하하하...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무리 정성 들여 일정을 짜면 뭐 하나, 교수님 말 한마디면 엎어지는데. 3월엔 배운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니, 3월 내내 제대로 가르쳐준 게 없는 게 그렇게 당연하신가요... (제보자 김업)

사진 출처 <무한도전>

Point 6

채점 기준 = 교수인 내 맘^_^

개고생하며 팀플을 했던 저널리즘 수업에서 C를 받았다. 농땡이 피우던 같은 팀 친구는 A를 받았는데 말이다. 이번엔 공부도 열심히 했고, 개인 시험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물은 C. 대체 왜? 교수님, 저는 왜 성적이 이런 겁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학교가 알아줬는지, 저번 학기부터 우리 학교에는 과목별 채점 기준과 항목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



는 '상세 성적 조회'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걸끄럽게 교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마음에 상세 성적을 조회했다. 거기엔 이번 중간고사가 전체 성적에 몇 퍼센트 반영되는지, 또 내가 정확히 몇 점을 받았는지 적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적어봤잖아? 이래서야 상세 성적 조회 시스템이 있으나마나 소용이 없다. 제발 이유나 좀 알려고요ㅠㅠ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그냥 마음 가는대로 채점하시죠? (제보자 김희정)

사진 출처 <훈장 오순남>

경영지원팀 하면 어때요?

밖에서 보면 고스펙자들만 모이는 브레인 집단이지만, 안에서 보면 현대판 노예가 따로 없답니다. '회사의 살림꾼'이란 이름 아래 온갖 잡무도 도맡는다고 자꾸만 문송해지는 공채 시즌, 문과생들이 가장 많이 지망하는 직무 중 하나인 경영지원팀의 하루를 들여다봤다.

EDITOR 서재경 suhjk@univ.me

사진 출처 KBS2 TV <김과장>·tvN <미생>

곧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괜찮아요!
퇴근은 내년에 하죠, 뭐!



하루 일과

8:30AM 출근. 전날 매출 보고와 함께 상쾌한 하루를 시작한다.



9:00AM 오전에 간단한 회의를 마치고 나면, 숫자와의 씨름이 시작된다. 고객사의 대금 입금 일정 확인, 온갖 입출금 내역을 체크, 결제계좌신고서 처리 등 숫자와의 끝까지 않는 한판 승부를 벌인다.

12:00PM 눈앞에 숫자가 아른 거릴 때쯤 점심시간이 된다. 마감할 것이 많은 월말엔 점심을 건너뛰기도 하지만 대체로 밥 시간은 사수하는 편.(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13:00PM 오후 업무의 시작. 햇살도 따듯하고 배도 부르지만 절대로 좋아선 안 된다! 실수는 곧 퇴사를 의미한다! 지금 관련 내역을 보고하고, 집행한다. 법인카드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매의 눈으로 다른 팀에서 눈먼 돈을 쓰진 않았는지 확인 또 확인한다.

16:00PM 가품씩 매장에 영업 지원을 나가기도 한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드문 일도 아니다.(응?)

7:30pm 마침내 퇴근! 하루의 절반을 회사에서 보내긴 했지만, 이 정도면 양호하다. 월말엔 처리할 업무들이 많아 밤늦게 퇴근할 때도 많으니까 이 정도면 칼퇴라고 쳐준다.

이번 주 '월'을 소개합니다

중견 기업 경영지원팀 3년 차. 재무 업무를 맡고 있다. 경제학과 졸업 후, 문과생이 으레 밟는 절차에 따라 경영지원, 마케팅, 영업 할 것 없이 입사 원서를 넣다가 이 회사에 합격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금은 회사에서 즐거운 날은 월급날밖에 없다고 단호히 말하는 단호박 직장인이 되었다.

핵심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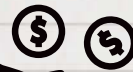
하는 일 기업마다 경영지원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상이하다. 그러나 보통 은행 역할을 하는 재무팀, 영업의 실적과 원가를 분석하는 회계팀,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는 총무팀, 회사 경영의 틀을 잡는 기획팀, 노무·채용·교육을 담당하는 인사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급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초봉은 천차만별. 중소기업 2200~2400만원, 중견기업은 2800~3000만원, 대기업은 3700만원~4000만원 선이다.

업무 강도 일주일에 2~3회는 기본적으로 야근이 있는 편. 연말 연초엔 각종 마감으로 헬 게이트가 열린다. 은행과 업무를 하다 보니 전산 사정 오류가 생기면 생각지도 못한 야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안 비밀.

인사
꿀팁



스펙은 이렇게 관리해요
회계학 등 관련 과목 성적을 잘 관리해 놓으면 면접 때 매력도가 상승한다. 토익, 토플 같은 영어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관련 과목을 공부하고,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는 것이 이득!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해요
필수는 아니지만,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등 실무와 밀접한 회계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200% 유리하다.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같은 전문 자격증이 있다면 프리 패스! 재경관리사 자격증이 있다면 거의 패스! 전산세무2급, 전산회계1급 자격증이 있다면 매력 어필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사람을 선호해요

모두가 입을 모아 '꼼꼼한 성격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실수를 하면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 회사 내 다른 팀을 돌봐주는(?)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업이 잘되고, 원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잘 맞는다.

팩트 체크

경영지원팀은 회사의 실세로 통한다던데 맞나요?

"다른 팀 직원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긴 하다. 호호. 자금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회사의 내막을 가장 잘 알고 있기도 하니까. 회사에 무슨 일이 터지면, 다른 팀 직원들이 은밀하게 카톡을 보내온다. 무슨 일인지 캐내려고. 그러나 실세라고 하기엔 찬밥 신세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다. 직접 돈을 벌어오는, 실무를 담당하는 팀은 아니어서 '돈은 우리가 버는데, 생색은 저 팀이 내네'라며 눈총을 받기도 한다."

회계학이나 경제·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경영지원팀에 지위관해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싶지만, 전공자가 확실히 유리하다. 실제로 채용할 때 지원 공고에 상경계열을 선호한다는 것을 명시해 놓기도 한다. 우리 팀에도 상경계열 출신이 많다. 다만,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비전공자일지라도 경영지원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관련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 놓았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경영지원팀 업무가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입사 후엔 특정 업무만 담당하나요? 아니면 모든 업무를
다 담당하나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 규모가 작을수록 경영지원(이라고 쓰고 모든 잡무라고 읽는다) 업무의 A to Z가 당신 몫이 될 수 있다. 내가 다니는 중견 기업의 경우, 재무 파트 인원만 열 명 정도 되고, 총무팀 인원은 더 많다. 그러나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선 1명이 모든 업무를 다 맡기도 한다. 완전 회사 by 회사다."

회사의 '살림꾼'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싶었던 업무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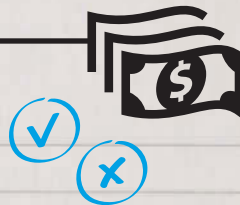
"가끔씩 요청이 오면 매장 지원을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총무팀은 종이컵이나 볼펜 같은 비품을 채워 넣는 일에 익숙해져야 할 거다. 타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는 학교 동기는 회사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건물을 알아보고 인테리어 업체 컨택하는 일까지 했다더라. '이런 일은 누가 하지' 싶은 것들은 어김없이 우리 일이다.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더더욱. 말이 살림꾼이지 그냥 현대판 노예라고 보면 된다.(오열)"



이 일도 저 일도
다 '우리 일'이라고
했다...



경영지원팀은
여러문을 해치지
않아요.



직무 특성상 자리를 바꾸면 안 돼서 휴가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눈치 게임 없이 휴가 가보는 게 꿈이다. 대직자에게 인수인계해주고 떠나면 되지만, 업무량이 많아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경영지원팀은 전사 직원들의 요구 사항을 일일이 처리해줘야 한다. 다른 직원들 입장에서 업무 하나를 요청한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게 쌓여 업무의 산을 이룬다. 어렵게 휴가를 떠나도 휴대폰이 계속 울릴 때가 많다. 중요한 보고를 해야 하거나, 사급 계획 수립 기간에는 발목이 묶여 어디로도 떠날 수 없다. 회계 업무가 몰리지 않는 비수기 시즌에 간신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팀원으로 시작해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경영지원팀의 업무는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업무다. 그런 점에서 이직이 활발한 편이다. 다만, 어떤 계통의 기업에 몸담았느냐에 따라 업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직도 같은 계통으로 하는 것이 수월하다. 작은 회사에서 자체 기장(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세무 관련 업무를 보는 것)을 했다면, 큰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한다면 자체 기장을 하는지,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입사하는 것이 좋다."

경영지원 업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하긴 하다. 본인의 역량이 된다면, 마케팅이나 영업 관리부서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물론 반대도 경우도 있고 다만 자신이 해당 업무에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회사를 가장 때려치우고 싶을 때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를 하나씩 꼽아주세요.

"부가세, 법인세, 연말정산 등 재무·회계적으로 굵직한 업무들을 해야 하는 시기는 정말 바쁘다. 너무 바빠서 7시간 동안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일한 적도 있다. 그만두는 게 답인가 싶어 사직서를 맘속에 고이 품고 다니다가 한다. 그러나 이 고비만 넘기고 나면 조금은 살 만해지고, 퀘스트 하나를 갠 것 같은 뿌듯함도 찾아온다. 연말에 보너스를 준다면 아마 더 보람할 것 같다.(데헷)"



되고 싶어서 말고 하고 싶어서

대학에 왔을 때 지금부터야말로 내가 기다려온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전까지는 마치 지금을 위한 준비 시간이기만 했던 것처럼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겠지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세련된 서울 아이들 틈에서 나는 촌스러운 시골 쥐 같았고, 재는 뭘 해도 하겠구나 싶은 남다른 재능들에 비해 나 정도의 재능은 널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연히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활동이나 강의들을 기웃댔 때였다.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드라마 창작 수업에 들어갔을 땐 현업에서 드라마 작가로 일하시던 교수님으로부터 내 재능은 70점짜리라는 말을 들었다. 성실하게 쓰는 게 장점이니 평타는 치겠지만 기막힌 작품을 써내진 못할 거라는, 그런 요지의 말이었다. 서운하다기보다 그동안 막연히 나를 답답하게 하던 뭔가의 정체가 걷히는

것 같았다. 아, 그래서였구나. 꿈속의 달리기처럼 늘 제자리에서 헛돌던 기분이. 정말 '재능 있는'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나는 딱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니 딱히 말리진 않았지만 한다고 잘될 것 같지도 않은. 오히려 재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다. 지망하는 업계 선배로부터 너는 다른 걸 해보는 게 어때?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야 70점짜리 재능이란 말을 듣는 게 나을 일인니까.

졸업 후 2년 여가 지난 뒤에 그 수업에 100점짜리 극본을 가져오던 친구가 드라마 작가 공모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되야 할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다. 그 애가 쓴 시놉시스는 다른 모든 아이들의 것과 달랐다.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걸 꼭 보고 싶어지는 글이었다. 어쩌면 인생은 그런 것일까. 재능 있는 친구 뒤에서 박수를 치는.

한번은 후배가 집에 내려가면 부모님이 자꾸 "그래, 다른 데 준비는 하고 있고?" 물어본다는 얘기를 한 적 있다. 갓 입사한 회사이니 그럴 법도 한... 게 아니라, 회사 다닌 지 3년째라는 게 문제였다.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들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하긴 내가 졸업 후 작은 잡지사에서 출근하게 되었을 때, 엄마는 축하한다는 말 대신 "그래서 방송국은 언제 갈까?" 물었다.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면 최소한 뉴스에 나와서 에스비씨 김신지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이거 우리 애가 만드는 거잖아, 자랑할 수 있게끔 엄마가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의 감독이나 작가쯤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런 엄마에게 인디 뮤지션들을 인터뷰하고, 제주에 다녀와서 여행기를 쓰는 내 일에 대해 설명하기란 힘들었다. 그 후로도

잘되지 못하리란 걸 예감하면서도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엄마는 내가 옮겨 다니던 회사의 이름을 좀처럼 외우지 못했고, 기다리다 지친 어느 추석에는 이렇게 물었다. "...니 그냥 MBC 다닌다카는 안 되냐? 마이 다르나?" 어쩌면 인생은 그런 것일까. 엄마가 보았을 때 '별다른 것이 되지 못한' 삶을 사는.

70점짜리 재능은 자라지 않았고 별다른 것이 되지도 못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다. 잘되지 못하리란 걸 예감하면서도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오랫동안 나는 이 질문을 품고 동동 떠다녔던 것 같다. 쓰는 일을 좋아하지만 늘 한 발짝 물러선 자세로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찾는 게 나을까?" 고민하기도 했고, "그래도 난 좋아하는 일 하잖아" 말하는 친구들 앞에서 변변한 매력 발산도 못 하고 늘 꿈무늬만 쫓아다니는 이 짝사랑에 대해 설명하지 못해 답답하기도 했다. 그런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난 뒤, 내가 닿은 물이란 이런 세계다. 무엇이 되려고 하기보다 무엇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세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대개 '하다'와 '되다'를 혼동하는 데서 온다. 어느 독립영화 감독을 인터뷰할 때다. 보통은 영화를 하고 싶으면 시험 쳐서 영화과 진학부터 하던데 당신은 무슨 배경으로 덜컥 월세 보증금 빼서 영화부터 찍었냐고 물었다.

"그 사람들은 영화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영화감독이 되고 싶은 거겠조. 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되고 싶어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성공한 누군가를 동경하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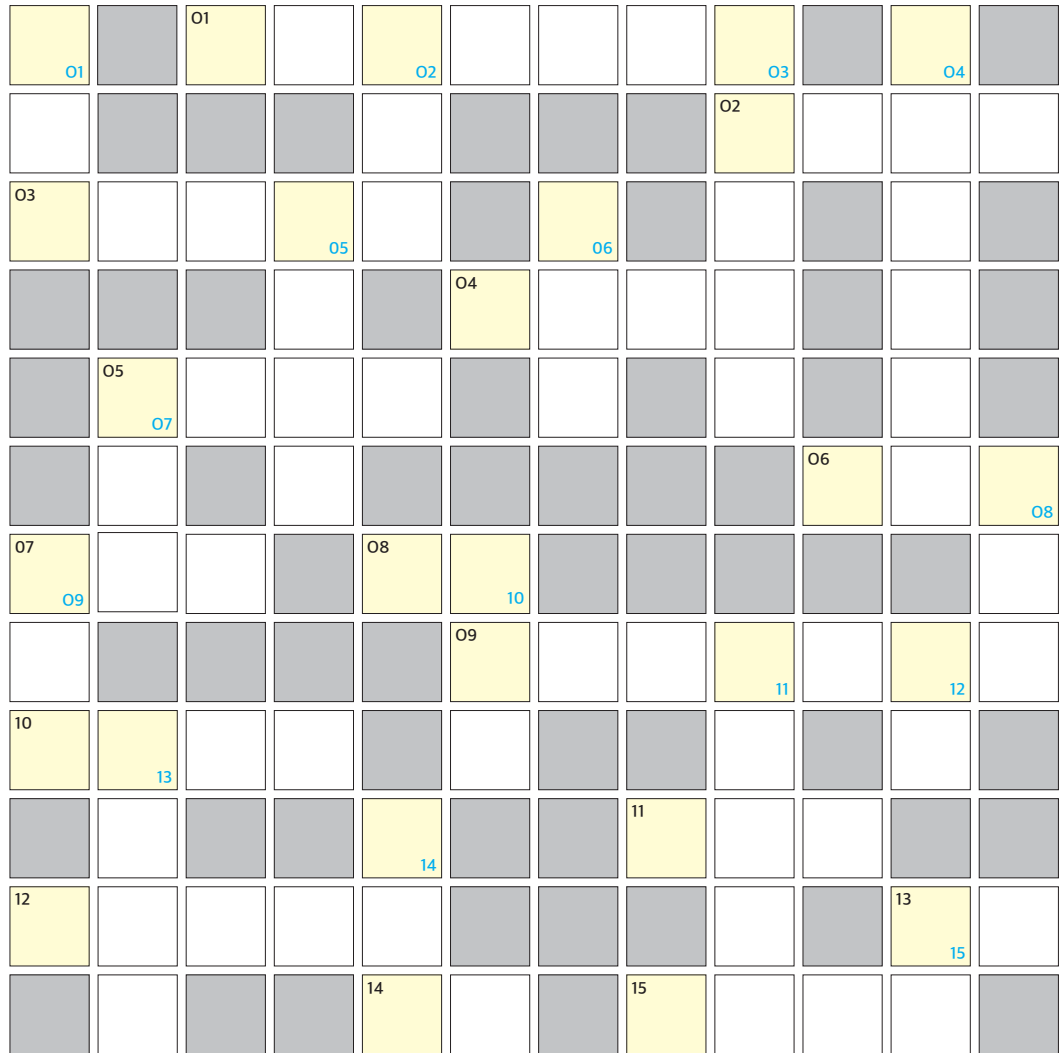
- 이숙명, 『혼자서 완전하게』 중

스물다섯에 함께 살았던 룸메이트가 신세 한탄이나 하며 매일 글쓰기로부터 도망치던 내 책상 앞에 붙여주었던 쪽지가 있다. "작가란 오늘 아침 글을 쓴 사람이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세계였다. 단지 오늘 아침 일어나 글을 쓰면 되므로. 물론 늦된 내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건 몇 년 뒤의 일이었지만. 그리하여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삶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최고의 작가가 되는 것은 어렵더라도, 매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동네 수영장에서 제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되긴 힘들겠지만, 일주일에 세 번 수영 수업을 빠지지 않고 가는 것. 그래서 자유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 세계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일을 마치고 만족감 속에 맥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다. 대단한 성취를 좇거나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나와 약속하고 조율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되다'와 '하다'를 혼동하지 않으면 70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다. 그러니 좋아하는 일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건 성공 여부가 아닐지 모른다. 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하고 싶어서인가 하는 것.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되려는 욕심이지, 좋아하는 일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묘년의 낱말 퍼즐

가운데에 있는 5면과 같은 모양의 퍼즐이다.



WEEKLY GIFT



퍼즐을 완성해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에 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대학내일 #김종욱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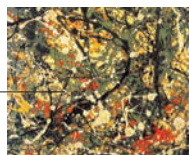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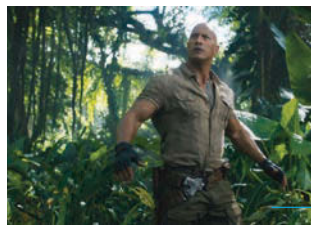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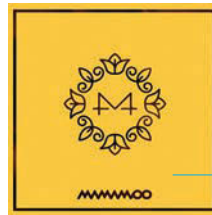
세 분(1인 2매)을 선정해
올해로 창작 12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로맨틱 뮤지컬
<김종욱 찾기> 티켓을
드립니다.

MUSICAL
<김종욱 찾기>
@대학로 뽀띠셀 씨어터



가로 열쇠

- 01 렉스 틸러슨에 이어 70대 미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전 CIA(미국 중앙 정보국) 국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위터 계정으로(...) 틸러슨 해임과 차기 국무장관 지명 사실을 알려 비판을 받기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대표적인 강경파인 만큼 전쟁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우려도 있다.
- 02 미국을 대표하는 이동통신 회사. 올해 초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협력사로 선정되면서 미국 5G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OOOO와이 어리스
- 03 열한 번이나 PGA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며 엄청난 전성기를 누렸던 골프 황제. 그러나 2009년 섹스 스캔들이 터졌고, 10명 넘는 여성들과의 불륜이 알려지면서 명성을 크게 잃었다. 최근 마스터스 대회에 3년 만에 복귀해 화제를 낳았다.
- 04 국내에서 한국인이 도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곳. 1998년 설립된 후로 매년 큰 수익을 남기고 있으며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고, 가정 파탄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엔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총 198명의 채용이 취소되었다.
- 05 "OOOO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꿀밤을 맞았대요/ 사바사바 아이사바 얼마나 울었을까요/ 사바사바 아이사바 천구백구십칠년 #지금은이천십팔년 #어머구두가내날에꼭맞네 #열두시기되었으니집으로돌아가자어
- 06 1976년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해태제과 아이스크림. 몇 안되는 '밤맛' 아이스크림이다. #내이름은OOO #거꾸로해도OOO
- 07 '4할도 못 치는 쓰레기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타격 기계. 두산베어스에 신고 선수로 입단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골든글러브, 올해의 선수, 타격왕, 최다 안타상 등을 받으며 KBO 최고의 좌타자 자리에 올랐다. 2016년에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두 시즌을 보냈고, 올 시즌부터는 LG트윈스에서 뛰고 있다. #식빵기계
- 08 야구장에서 투수들이 투구 연습을 하는 장소. 경기 중엔 대부분 구원투수들이 이곳에서 몸을 풀기 때문에 구원 투수진 전체를 묶어 'OO'이라 부르기도 한다. #잘막으면불끄는OO #못막으면불지르는OO
- 09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이나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의 사용 내역을 쓰임새를 '집사'처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자율 규범. 올해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 10 천안의 명물. 꼭 천안이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면 이걸 먹고 싶어진다.
- 11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이자, 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한국 사회의 군사주의·집단주의·성차별에 대해 서술한 『대한민국은 군대다』 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 12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영리한 부분이 있다"는 뜻의 형용사. 난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김유정의 '봄봄'에서 이 단어를 처음 봤다.
- 13 설날이 되면 빠뜨리지 않고 한 그릇씩 먹는 음식. 이것을 먹어야 [가로14] 한 살 먹는 거다, 그럼 두 그릇 세 그릇 먹으면 [가로14] 더 먹는 거냐, 난 [가로14] 먹기 싫으니 그거 안 먹올랜다, 뭐 이런 식상한 우스갯소리가 이 음식을 얘기할 때마다 나온다. #얇게썬가래떡
- 14 "안 되는 걸 알고 되는 걸 아는 거/ 그 이별이 왜 그랬는지 아는 거/ 세월한테 배우는 거/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두자리의 숫자 나를 설명하고 두자리의 숫자 잔소리하네/ 너 뭐 하냐고/ 왜 그러냐고/ 지금이 그럴 때냐고" #월간윤종신
- 15 현대미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추상표현주의 화가. 캔버스 위에 마음대로 물감을 흠뻑인 듯한 작품으로 '액션'의 중요성을 표현하려 했다.



세로 열쇠

- 01 물리력을 기반으로 특정 세력이 정권을 뒤집어엎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행위.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으로 대통령이 된 일은 명백히 'OOO'이지만, 이후 김영삼 정권 당시 검찰은 "성공한 OOO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졌고 결국 전두환·노태우는 대법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 02 1)잘생긴 축구선수 산타 OOO,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톰 OOO,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자 페넬로페 OOO 2)체보레에서 만든 중형차 브랜드 3)난민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초호화 여객선.
- 03 공중에 떠오른 공을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치는 기술. 난이도가 높고 동작이 화려한 데다 수비수들이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골까지 기록하면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최근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이 기술로 골을 기록해 이례적으로 상대 팀인 유벤투스 팬들의 박수를 받기까지 했다.
- 04 "손끝이 시리더니 벌써 봄이 왔네/ 평갈은 바람이 불어 곳곳에/ 여느 때와는 다른 듯한 이 기분이 반가워/ 내일은 좀 다른 날이 되려나" #마마무 #새벽이찾아오면 #흔자남겨질때면
- 05 기타를 조그맣게 축소시킨 것처럼 생긴 현악기. 줄은 기타보다 두 개 적은 4개. 포르투갈에서 하와이로 처음 전해진 뒤 하와이를 대표하는 악기가 되었다. 후대가 간편하고 비교적 배우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 06 서울의 동네 이름이자 김민석 작가가 참여한 '아무튼 시리즈' 제목. #아무튼OOO #어린나는그곳을여권도없이자유롭게남나들었다
- 07 대한민국 최초로 동계 패럴림픽 금메달을 따낸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지만 운동을 시작하며 조금씩 좌절을 극복했다. 그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 때에는 핸드 사이클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08 <고등래퍼2>에서 김하은·이병재가 팀을 이뤄 부른 노래 제목. 명상·공정으로 무장한 김하은과 우울·비관을 가사에 담은 이병재가 대화하듯 써낸 가사가 호평을 받았고 방송 이후 공개된 음원은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백그리그다음
- 09 2006년부터 <무한도전>을 이끌어온 PD. 최근 <무한도전>이 잠정적으로 종영하면서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10 성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성과 일대일 접촉을 피하는 행동. 미국 부통령이 이 원칙을 고수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한국에서도 급속히 이 단어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김상곤 사회부 총리는 화식·출장에서 아예 여성을 배제하는 등 성차별로 변질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11 미국의 프로레슬링 선수 출신 영화배우. '더 락'이라는 선수 시절 예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은퇴 후 배우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는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미국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차기 대선 여론조사 후보군에 포함되기도 했다.
- 12 "싸울 때 OO 나면 진 거야"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 중 하나로, 핵 관련 시설 등 북한의 핵심 기지를 정밀 타격해 피해를 준다는 전략.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길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적지 않다.
- 13 모나지 않게 동그스름한 모양이나, 불명확하게 얼버무리는 모습을 뜻하는 말.
- 14 머리띠처럼 활용하는 손수건 혹은 헤어스타일링. <윤식당>에서 배우 정유미가 자주 착용해 인기를 끌었다.
- 15 비트코인이 떠오르면서 생긴 신조어로, '갑작스러운 폭락'을 뜻한다.



애경 뷰티 브랜드 '플로우(FLOW)' 론칭

애경에서 친환경 코스메틱 브랜드 '플로우'를 론칭했다. 플로우의 전 제품은 친환경 공법으로 개발된 독자적인 '오일수'를 바탕으로 제작됐다고. 물과 오일을 1:3 황금 비율로 조합해, 유수분 밸런스를 잘떡같이 맞춰주는 것이 특징. 혹독한 봄철 미세먼지에 지친 피부를 친환경 화장품으로 달래보자.



잇츠스킨 '하이드라 루틴 레인드롭세럼' 출시

잇츠스킨에서 국내 최초로 7종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하이드라 루틴 레인드롭세럼'을 출시한다. 히알루론산을 베이스로 하는 제품 중에는 최고 수준의 보습력을 자랑한다고. 풍부한 수분이 푸석푸석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촉촉하게 채워준다. 손등보다 얼굴에 직접 발랐을 때 흡수가 더 잘된다고 하니 참고할 것.



뚜레쥬르 신제품 '리코타&상큼 과일 샐러드'

중간고사 기간, 간편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한 끼를 찾는 이들 주목! 뚜레쥬르에서 '리코타&상큼 과일 샐러드'가 새로 나왔다. 삶은 계란, 상큼한 과일, 채소 스틱에 리코타 치즈를 곁들여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은 샐러드다. 5대 영양소를 고루 갖춰 균형 잡힌 한 끼로 손색이 없다.

Weekly Hot & New

이주의 주목할 만한 소식들



인스타그램 '포커스' 카메라 기능 추가

파워인스타그램머들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 배경은 흐릿하게, 얼굴은 또렷하게 강조해주는 '포커스' 카메라 기능이다. 앱을 업데이트하면, 미러리스 못지않은 아웃 포커싱 효과를 낼 수 있다. ios 기기용 앱에서는 스티커로 자인이나 다른 계정을 태그해 공유하는 '@ 언급' 스티커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워너원 '포토 에세이' 발매

워너원은 모두 깨어나세요. 그룹 '워너원'이 포토 에세이를 발매했다. 화보를 비롯해 칼럼, 인터뷰, 재킷 사진 및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등이 포토 에세이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한정 사은품으로 멤버들의 인생 컷 북마크, 포토엽서 2장 세트, 페이퍼 프레임이 랜덤으로 제공된다고. 예약 판매는 4월 22일까지 진행된다.



돌 '봄인가봄' 피크닉 박스 판매

바나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는 회사, 돌(Dole)이 운영하는 수입 과일 전문물 '돌리버리'에서 4월 30일까지 '봄인가봄' 피크닉 박스를 한정 판매한다.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자몽, 오렌지 등 구성도 다채롭다. 피크닉을 계획 중인 커플뿐 아니라, 평소 과일을 잘 못 먹는 자취생들도 간식으로 즐길 수 있다.



아디다스 '아르킨 캠페인' 론칭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에서 아르킨(ARKIN) 캠페인을 론칭했다. 아르킨 컬렉션 제품 출시를 맞이해 여성들에게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이다. 모델 캔달 제너, 가구 디자이너 애나 크라스, 축구선수 겸 DJ 플로렌시아 가라자 등 5명의 여성 아티스트가 함께했다. 컬렉션은 여성들만을 위한 새로운 콘셉트의 스트리트 웨어와 스니커즈로 구성되어 있다.



장수막걸리 신제품 '드슈', '막카오'

국민 막걸리 브랜드 장수막걸리에서 2030세대를 겨냥한 신제품 막걸리 2종을 출시했다. 국내산 쌀 100%로 만든 발효주에 파인애플 과즙을 담은 '드슈'와 카카오닙스의 씩살한 맛을 담은 '막카오'다. 알코올 도수는 4도로 가볍게 즐길 수 있다. 패키지 디자인마저 앙증맞다. 이번 주말엔 막걸리로 달려보자.

01

제4회 제주항공 마케팅·광고 공모전 (~5.4)



시험 끝나면 비행기 타고 훌쩍 떠나고 싶은 친구들! 제주항공에서 개최하는 제4회 마케팅·광고 공모전에 도전해봐. 제주항공의 충성고객 창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나 신규 노선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광고 시안과 함께 제출하면 돼. 대상에게는 상금 300만원, 국제선 왕복 항공권, 인턴십 및 입사 우대 등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지니까 꼭 도전해봐!

주최 제주항공
기간 ~ 2018년 5월 4일(금)
태그 #여행_뿌서 #취업_뿌서

02

2018 두끼 서포터즈 (~4.20)



시험 끝나면 배 터지게 떡볶이 먹고 싶은 친구들! 즉석떡볶이 뷔페 두끼에서 모집 중인 2018 두끼 서포터즈에 도전해봐. 떡볶이가 소울푸드인 수도권 거주자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두끼 매장 방문 및 설문, SNS 포스팅,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을 하는 활동을 하게 될 거야. 활동비는 물론이고 두끼 식사권과 신제품 시식 기회도 제공되니까 꼭 도전해봐!

주최 두끼떡볶이
기간 2018년 4월 20일(금)
태그 #두끼먹을생각에 #내심장이_두끼두끼

그래 바로 너!

:

지금 너는 공부 빼고

다 재미있으니까

시험 끝나고 놀 궁리만 하는 너를 위한 활동 BEST 4

03

2018 대구치맥페스티벌 아이디어 공모전 (~4.27)



시험 끝나면 밤새 치맥 달리고 싶은 친구들! 2018 대구치맥페스티벌 아이디어 공모전에 도전해봐. 치맥을 사랑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어. 프로그램, MD 상품, 홍보 방안 등 대구치맥페스티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돼. 대상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한국치맥산업협회장상을 준다고 하니까 꼭 도전해봐.

주최 한국치맥산업협회
기간 ~ 2018년 4월 27일(금)
태그 #치킨의성지 #대구로_가자

04

2018 제주축제 영상 공모전 (~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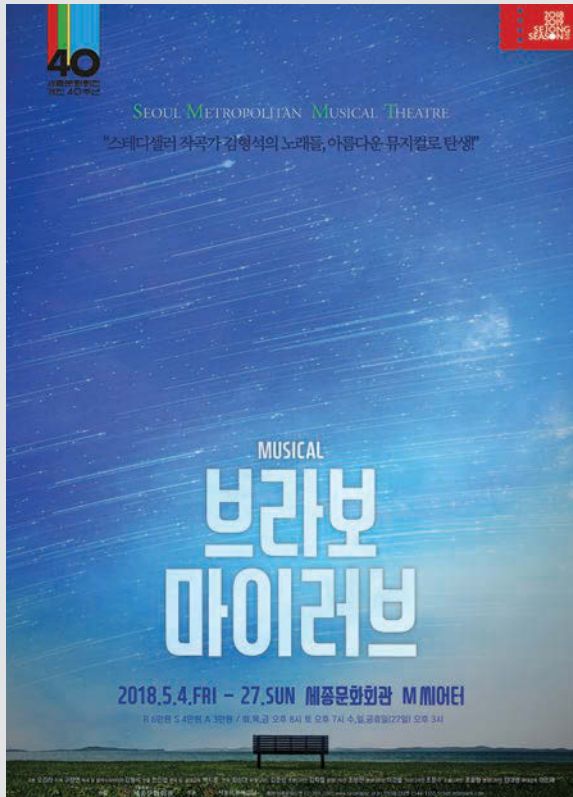


시험 끝나면 제주의 푸른 바다로 떠나고 싶은 친구들! 제주관광공사에서 개최하는 2018 제주축제 영상 공모전에 도전해봐. 제주 축제 내용이 포함된 3분 미만의 제주 여행 영상을 제출하면 돼. 축제 목록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대상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여하니까 꼭 도전해봐!

주최 제주관광공사
기간 ~ 2018년 6월 29일(금)
태그 #제주도_다녀오고 #제주도_부러보자

#대학생만을 #위한 #금주의 #꿀정보

EDITOR 김민기 minki12@univ.me



세종문화회관/서울시뮤지컬단

뮤지컬 <브라보 마이 러브>

www.sejongpac.or.kr

서울시뮤지컬단이 뮤지컬 <브라보 마이 러브>를 선보인다. 스테디셀러 작곡가 김형석의 노래로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로, 미국으로 입양됐던 플루티스트 딸과 엄마의 애절한 재회를 그린 작품이야. 따듯하고 편안한 김형석표 명곡과 함께 섬세하고 아름다운 가족애를 담은 뮤지컬 <브라보 마이 러브>가 보고 싶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해 예매해봐.

공연 일정

2018년 5월 4일(금) ~ 27일(일)

공연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한국광고총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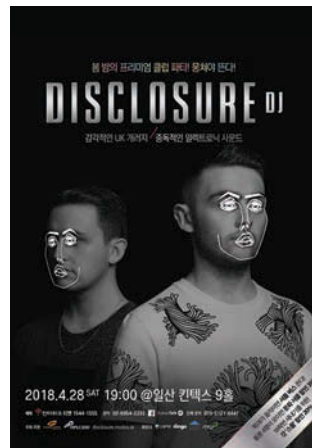
2018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KOSAC)

kosac.ad.co.kr

한국광고총연합회에서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KOSAC)를 개최한다. 작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캠페인 전략을 PPT 30장 이내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 최종 대상 팀은 상금 5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게 될 거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지원해봐.

응모 일정 2018년 5월 11일(금) ~ 5월 14일(월)
응모 대상 2년제 이상 대학(원)생, 3~5인 팀 구성 필수

D2 글로벌 컴퍼니



<DISCLOSURE DJ SET>

ticket.interpark.com

일렉트로닉 듀오 디스크로저가 단독 공연 <DISCLOSURE DJ SET>으로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디스크로저는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 댄스-일렉트로닉 차트 1위를 차지한 인기 아티스트야. 이번 공연은 1만 명 이상이 함께 즐기는 클럽 파티 콘셉트로 꾸며진다고 해. 자세한 내용은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 참고.

공연 일정 2018년 4월 28일(토)
공연 장소 일산 킨텍스 9홀

기업명	직무	홈페이지	지원 마감	기타
국민연금공단	사무직, 심사직	www.nps.or.kr	~ 4.23	2018년 상반기 신규 직원 모집
한화호텔&리조트	재경, 기획, 영업, 마케팅	www.hanwhain.com	~ 4.25	2018년 상반기 한화호텔&리조트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공모전

주최	공모전명	분야	지원 마감	상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	광고, 웹툰, 사진	~ 4.26	대상(분야별 1편) 300만원, 금상(분야별 1편) 200만원, 은상(분야별 1편) 100만원, 동상(분야별 2편) 50만원, 가작(분야별 5편) 30만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독섬 자별레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 4.30	공간 활용 제안 부문 대상(1건) 200만원, 최우수상(1건) 100만원, 우수상(3건) 50만원 한줄 아이디어 부문 우수상(10건) 문화상품권 10만원권, 참여상(10건) 문화상품권 5만원권
코레일	제2회 초단편 철도 영화 공모전	영상	~ 5.11	대상(1팀) 500만원, 최우수상(1팀) 300만원, 우수상(2팀) 100만원, 장려상(5팀) 50만원, 입선(10팀) 20만원, 특별상(10팀) 영화티켓 20매
경찰청	사이버안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 5.13	최우수상(1팀) 100만원, 우수상(2팀) 50만원, 장려상(4팀) 20만원
아모레퍼시픽	2018 BRAND CHALLENGE 아모레퍼시픽 마케팅 공모전	마케팅, 영상, 사진	~ 5.16	최우수상(부문별 1팀) 1천만원·인턴십·입사 특전, 우수상(부문별 1팀) 500만원·인턴십·입사 특전, 장려상(부문별 3팀) 200만원·입사 특전, 입선(부문별 5팀) 화장품 세트 증정
한국선거방송	2018 깨알영상 공모전	영상	~ 5.25	대상(1팀) 100만원 및 중앙위원장상, 최우수상(분야별 1팀) 70만원 및 중앙위원장상, 우수상(분야별 1팀) 50만원, 장려상(분야별 2팀) 30만원

대외활동

주최	대외활동명	활동 기간	지원 마감	활동 혜택
김포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SNS 홍보 서포터즈	8개월	~ 4.20	팀별 활동비 지급, 우수팀 포상, 인증서 발급
두끼	2018 두끼 서포터즈	2개월	~ 4.20	월 활동비 20만원 지급, 활동 종료 시 우수 서포터즈 포상, 식사권 제공, 신제품 시식 기회 제공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몰링트렌드 마케터 13기	2개월	~ 4.24	마케터 최종 합격자 입사 지원 시 가산점 제공, 활동 종료 후 수료증 및 지원금 지급, 타임스퀘어 이벤트 참가 기회 제공 등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예방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3기	5개월	~ 4.25	월별 활동비, 위촉증 및 수료증 발급, 우수 팀 시상, 기본 증정품(명함, 단체복 등) 제공
교보교육재단	참사랑 대학생 서포터즈	7개월	~ 4.29	봉사활동 인증 시간 부여, 팀별 활동비 지원, 서포터즈 수료증 발급, 최우수 서포터즈 선발 및 포상
잠자리	잠자리프렌즈 27기	4개월	~ 4.30	제휴 호텔 무료 이용권 무한대 제공, 각종 미션 및 조별 활동 선물 지급 등

강연 / 이벤트

주최	행사명	홈페이지	일정	기타
대림미술관	Paper, Present: 너를 위한 선물	www.daelimmuseum.org	~ 5.27	서울 대림미술관
K현대미술관	이상한 나라의 괴짜들: Geek Zone	www.kmcaseoul.org	~ 7.8	서울 K현대미술관

BRAND CHALLENGE 2018

MILLENNIALS BY

뭐 좀 안다는 이들의 공모전, 2018 브랜드 챌린지 '오 놀 줄 아는 놈인가?'

2018 브랜드 챌린지가 돌아왔다. 혜택은 여전히 헤zas러우며, 테마는 역시나 합하다. 'Millennials by Millennials (밀레니얼세대에게 듣는 밀레니얼)'라니, 과연 브랜드 챌린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 공모전의 끝판왕이란 무릇 이런 것이리라.

EDITOR 김예림 yearim@univ.me

'오놀아눔'인 당신이 알아야 할 '2018 브랜드 챌린지'

01

**'합'한 테마로
협게이지 상승**

이번 2018 브랜드 챌린지는 'Millennials by Millennials(밀레니얼세대에게 듣는 밀레니얼)'이라는 테마로 진행된다. 지원 부문은 Strategy와 Creative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참여 브랜드는 총 10개다. 참고로 이번에도 부득이하게 오리엔테이션(4/25일 진행 예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페이스북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역시, 브랜드 챌린지 클라식 크으 5G9요'

참여 브랜드 (총 10개)

라네즈, 마몽드, 미쟈센, 베리떼, 아리따움, 아이오페, 에뛰드, 이니스프리, 프리메라, 해피바스



02

**둘도 없는
혜택을 깃**

올해엔 Strategy와 Creative 두 부문의 혜택이 동일하다. Creative 부문의 경우, 작년 최우수상의 시상금이 5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Strategy 부문과 같이 1000만 원이라는 사실. 입사특전 및 인턴십 혜택도 주어진다. 여기에 하나 더! 이번엔 수상자들을 위한 AP 신사옥 투어 프로그램까지 추가로 마련됐다.

■ 최우수상 (1개팀)

상금 1천만 원
인턴십 +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1차면접 면제

■ 우수상 (1개팀)

상금 5백만 원
인턴십 +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 장려상 (3개팀)

상금 2백만 원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 입선 (5개팀)

화장품 선물세트 (10만 원 상당 인당 1개)

※ STRATEGY(기획서 부문), CREATIVE (제작 부문) 동일
※ 최우수/우수 수상자의 인턴십은 '18년 8월부터 4주간 진행

03

**숨겨진
크리에이티브함을
펼칠 기회!**

Creative 부문은 밀레니얼 대상 브랜드/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 혹은 이미지, SNS 콘텐츠 등 다양하게 접수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다. 창의력을 내세워 공감할 만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면 B급 감성이라고 해도 오케이! 덕분에 참여율도 덩달아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이번엔 특별히 인스타그램 채널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도록!

아모레퍼시픽 마케팅 공모전 일정

■ 오리엔테이션

2018년 4월 25일(수)

■ 예선 접수

2018년 4월 26일(목)~5월 16일(수)

■ 본선 접수

2018년 5월 31일(목)~6월 28일(목)

■ 챌린지클래스

2018년 6월 11일(월)~6월 12일(화)

■ 결선

2018년 7월 27일(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전년도 브랜드 챌린지 최우수상팀!

01



Strategy 부문
최우수상
수상팀



내 꿈의 시작, 브랜드 챌린지 (최승혁, 26, 서울대)

국내 최대, 최고의 마케팅 공모전이라 꼭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참여해 보니 공모전 일정이 체계적이고 많은 정보가 오고 가서, 참가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죠. 저희는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내려고 했는데요.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차별적인 아이디어인지를 계속해서 검증하려고 했어요. 이후 아이디어에 논리를 입혔죠. 아이디어를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모두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탄탄한 기획력으로 기획서의 내용을 잘 배치하는 것만큼 디자인 감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브랜드 챌린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모전이라 경쟁이 매우 치열하거든요. 때문에 기획서의 논리성, 디자인 등은 필수인 거 같아요.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발표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가장 좋은 건 소중한 인턴십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에요. 마케터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돼 너무 기뻐요. 여러분 모두 좀 더 행복해지고 싶으시면 공모전에 참가해 보세요. 그리고 행복을 얻는 과정 역시 즐기시길 바라요!

02

화려한 시작이 된 브랜드 챌린지 (이강호, 28, 홍익대)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다면 바로 실천으로 옮기세요. 창의력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건 실행력이거든요. 저희 팀 역시 작년에 신설된 creative 부문에 도전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일단 행동에 옮겼죠. 이때 중요한 건 주어진 주제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아닐까 해요. 기존과 차별화되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말이에요.

브랜드 챌린지란, Timeless Beauty (조양성, 29, 홍익대)

어마어마한 상금에 끌려 참여하게 되었지만, 막상 공모전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마 늘 긍정적으로 부담감 없이 하니 아이디어도 잘 나오고 결과물도 좋았던 거 같아요.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디어와 함께 주제의 명확한 전달성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저희는 중심 콘셉트 하나를 정해 하나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로 했고,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죠.

멋집의 대명사, 브랜드 챌린지 (곽슬기, 26, 홍익대)

상금도 어마어마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 가진 엄청난 영향력은 무시 못해요. 어디 가서 브랜드 챌린지 수상했다고 하면 다들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웃음).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팀원들과 많이 친해졌는데요. 브랜드 챌린지가 1인 공모전이 아니라서 팀원들과의 케미가 좋으면 더 좋은 작업물이나오는 거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마음 잘 맞는 팀원분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차근차근 임해보세요.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Creative 부문
최우수상
수상팀



MILLENNIALS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기적!
흥겨운 재즈 음악이 함께하는 최고의 힐링극



울림있는 블랙코미디!
흥겨운 스윙댄스!
16인조 빅밴드의 매력있는 재즈연주!



뮤지컬
존도우
MEET JOHN DOE
— j —

2018. 3. 1. Thu - 4. 22.Sun 홍익대대학로아트센터 대극장

예매처 인터파크 예스24 할인 착한할인 50%(헌혈증기증,기부/나눔/봉사 확인) 학생할인 50%

대학교 봄 축제! 주점 지원 이벤트

Feat. 광동 핫개차



대학내일은 광동 핫개차를 쏘테니, 너희는 매너있는 주점을 만들거라

모집 대상 축제기간 동안 주점을 운영하는 10인 이상의 대학생 단체 50팀 (동아리, 학과 등)

모집 기간 2018. 04. 09(월) ~ 2018. 04. 22(일)

결과 발표 2018. 04. 25(수) / 선발 단체에 개별 연락

지원 물품 단체당 광동 핫개차 500ml X 15박스

지원 방법 네이버 폼 지원서 작성 및 제출 (<http://naver.me/50A9mx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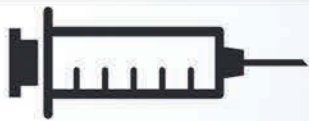


유의 사항

1. 지원서 평가를 통해 제품 지원 단체가 선발되오니 지원서를 양식에 맞게 성실히 작성해주세요.
2. 선발 시 지원받은 제품을 활용하여 SNS 후기 미션 진행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 선발 단체에 개별 안내)
3. 단체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문의 사항

전화 02-735-1142 / 이메일 lsh@univ.me



중독 위험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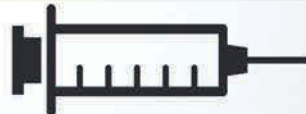
Fiit

MATCH
designed for lil

담배답게
매치 MATCH

신제품 2종

쿨하게 믹스
스파키 SPARKY



중독 위험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Fiit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